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The mark of responsible forestry
FSC® C011053
PRINTED WITH SOY INK

인천항만공사
(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타워(31~35F) 032-890-8000 www.icpa.or.kr

MOVING TOWARD A BETTER FUTURE

인천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ABOUT THIS REPORT

보고 원칙과 기준

본 보고서는 인천항만공사의 여덟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국제 지속가능경영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이슈를 바탕으로 4대 핵심 보고주제(Material Topic)와 보고주제별 경영접근방식(MA: Management Approach)을 구성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주요한 활동의 경우 2021년 상반기 활동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 보고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범위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보고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무 정보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사회 및 환경 일부 지표의 경우 데이터 취합의 제한으로 인해 해당 데이터의 보고 범위를 주석에 표기하였습니다.

제 3자 검증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및 작성된 보고 정보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 검증 전문기관 한국품질재단의 검증을 의뢰하였으며, 국제적 검증 규격에 따라 검증을 받았습니다. GRI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제 3자 검증 결과는 P.94-9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보고서의 재무 정보는 독립적인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검증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검증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CONTENTS

PART 1

내일이 더 기대되는 IPA

MOVING TOWARD HOPE

CEO 메시지 02
인천항의 어제와 오늘 06
인천항의 내일 08
COVID19 연대와 협력 10
인천항만공사 소개 14
비즈니스 모델 18
비전 및 전략 22

PART 2

든든한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갖춘 IPA

MOVING TOWARD SUSTAINABILITY

지배구조 26
이해관계자 참여 28
사회적 가치 실현 30
중대성 평가 32

PART 3

혁신과 포용으로 도약하는 IPA

MOVING TOWARD A BETTER FUTURE

혁신과 스마트 기술로 성장하는 인천항 36
안전하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항만 46
공유가치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58
사람중심 소통과 혁신 70

APPENDIX

성과 데이터 84
GRI 인덱스 90
주요 이니셔티브 92
제3자 검증의견서 94
ISO 26000 진단 의견서 96
주요 협회 가입 및 수상현황 98

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을 뒤흔들고 세계질서를 바꾸는 거대 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 위기라는 3중의 위기 속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327만 TEU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물동량 감소를 경험했으나 비대면 마케팅 체계 전환으로 신규 항로 6개 개설, 중부권 화주 유치 등으로 민첩하게 위기를 기회로 대처하였습니다.

수도권 물류 관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인천항만공사는 이제 2030 새로운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인천항은 국제무역항으로 비상하기 위하여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복합가치공간(Leading Complex for Logistics & Maritime Services)'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성과는 물론 환경과 사회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인천항으로 발전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인천항은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음을 약속 드립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뉴노멀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경제로의 대전환과 빅데이터·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산업현장 곳곳의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인천항 이용고객에게 해운물류 분야의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이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그동안 대규모 항만 인프라 투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관련업계 충격 완화 및 고통 분담을 위해 지출 규모를 확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와의 고통분담과 상생협력에 힘쓰고 중단 없는 항만운영을 위한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수익증대·비용절감·사업관리 3가지 관점에서 전사적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대표 물류 및 관광허브가 되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세계적 경기부양책 기조에 맞춰 대중국 중간재 수출화물 유치를 확대하고 신규항로 확보와 항로 다변화, 대형화주 발굴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여 물동량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고부가가치 화물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관광산업의 단기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객운송 재개를 대비한 시설개선, 여객유치 마케팅에 주력하고 크루즈터미널-수변공원-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을 활용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활용에도 힘쓰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사회적 가치와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사의 고유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공공이익 실현에 앞장서고, 인천항 이용자와 고객, 협력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혁신과 항만 특화형 민간 일자리 발굴 성과를 항만 경쟁력으로 수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 준수와 불합리한 규제 문턱을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인천항 고객과 지역사회에 한층 더 다가가는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항만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재난위기 대응체계 확립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인천항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 분야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선도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계획의 착실한 이행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인천항이 '클린항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 최 준 욱

PART 1

MOVING TOWARD
HOPE

내일이
더 기대되는 IPA

인천항의 어제와 오늘	06
인천항의 내일	08
코로나19 연대와 협력	10
인천항만공사 소개	14
비즈니스 모델	18
글로벌 항로	20
비전 및 전략	22

인천항의 어제와 오늘

인천항은 더 크고 넓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서해안 지역의 전략적 지리에 위치한 항만으로 국제 교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최초 갑문식 선거를 탄생시키는 등 근대 산업항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대형선박을 수용하기 위하여 1974년 축조된 갑문은 동양 최대규모를 자랑합니다.

국내 최대의 수도권 공업지대와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 및 중부지방을 세력권으로 하는 서해안 제일의 무역항인 인천항은, 동북아시아와 연결되는 물적·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 글로벌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국제무역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2020년 컨테이너 물동량 국내 2위와 수도권 물류 관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대동맥으로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내일

동북아 물류·관광허브로 비상합니다

수도권 관문항이자 미래의 환황해권 해운물류를 주도해나갈 인천항은 새로운 2030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류, 해양, 관광, 환경보존, 지역기여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복합가치공간(Leading Complex for Logistics & Maritime Services)"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항은 항만별 기능 재정립, 항만 배후단지 조성, 저탄소 친환경 항만 구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사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기능을 재정립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인천 연안을 잇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인천지역을 국제, 문화, 관광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확고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인천항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시와 항만의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의 환경적 건설을 도모하고 도시 기능과 연계한 해양 및 항만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여 인천시와 지역주민, 인천항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제무역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항만분야 친환경 사업 추진으로 해양환경보전, 국내 최초 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 성과 달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항만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SPECIAL FEATURE

COVID19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국가경제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필수 인프라 서비스 시설로서 위기 속에서
최선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물론 많은 이해관계자, 지역사회가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의료,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가며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복원력과 이해관계자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SPECIAL FEATURE

코로나19 연대와 협력

코로나19 대응 추진방향

코로나19 팬데믹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을 뒤흔들고 세계질서를 바꾸는 거대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세계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온 위기가 더 큰 불확실성을 향해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의 3중의 위기 속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확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無중단 항만 운영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도 중단없는 기관 운영을 위해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연속성 경영시스템 ISO 22301에 기반하여 필수 인원 선정, 비상연락체계 유지, 직원 재택근무 확대,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을 엄격하게 실시한 결과, 임직원 중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두 출입을 위한 임시 대기소를 운영하고, 고객지원센터 방역키트 상시 제공, 항만 근로자 방역물품 집중 지원 등 항만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방역 집중 지원으로 감염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만인프라 지원

공사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글로벌 무역 감소로 인한 인천항 물동량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항을 이용한 선사를 대상으로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송 선박 부족으로 수출 중고차가 적기에 선적되지 못하고 적체되자 중고차 수출업계의 차량 보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임시 야적장을 제공하여 중고차 22만대를 수출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운물류업계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성과로 2020년 인천항 물동량은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항만	물류	방역
현황진단		국제여객운송 완전 중단으로 관련업계 경영타격 심각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세 사전 포착	감염병 리스크로 항만폐쇄, 물류중단 등 위험 상존
지원방향 설정	IPA 역할	항만업계 보호	수출입 물류회복	감염병 확산방지
	항만 니즈	여객선사 등 존폐위기 기업 긴급지원 급선무	물동량 감소 대비 항만 물류 활성화 지원 필요	항만과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 방지 지원 필요
지원과제		생존지원	활력제고	방역강화
		항만업계 맞춤형 경영안정 지원 항만·지역사회와 다각적 고통분담	인센티브 신설과 신규항로 유치 지원 수출장애 해소와 배후단지 투자유치	항만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 중단없는 항만운영 환경 조성 항만·지역사회 방역강화 지원

항만업 및 종사자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여객선 운항 중단 및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적자 위기에 직면한 항만 업계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방면의 감면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여객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에게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배후단지 등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포함하여 항만용역과 항만하역업의 임대료와 사용료를 위기 상황에 따라 감면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항만업계 맞춤형 지원 **145억 원**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배후단지 등 입주기업	항만연관산업 (항만하역업·항만용역업·장치장 부지)
81.6억 원	**60.9억 원**	**2.5억 원**

지역사회 지원

코로나19는 인천항 주변 지역 경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 관련 전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상생펀드 금융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여객 분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체근로를 제공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항만 건설분야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은 무료 급식소 지원과 함께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를 구매하였습니다. 공사는 다각적 고통 분담 노력으로 항만업과 지역사회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만관련 업종 중소기업 생생펀드 지원 **40억 원**

	항만	물류	방역
대책수립단계	피해상황점검 긴급지원책마련	물동량 영향분석 물류흐름 점검	방역비상체제 가동 항만 감염 유입통제
방역·지원 집중 단계	임대료 감면 등 지원 시행 추가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코로나19 대응 인센티브 긴급지원 비대면 마케팅 강화 물류 애로사항 개선	임직원 분산근무 집단검사소 부지제공 방역물품 지원 등
장기화 대비 단계	2021년 지원대책 수립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제도 개선	2021년 방역체계 개편

無중단 항만 운영	항만업 및 종사자 지원	항만 인프라 지원
분산근무 등 감염확산 방지 검사소 부지제공 방역물품 지원 항만분야 특성별 맞춤형 방역지원	항만업계 지원 임금반납 등 고통분담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물류회복·도약을 위한 인센티브 및 마케팅 지원 수출지원 물류 인프라 제공

인천항만공사 소개

설립 목적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자 2005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정부로부터 인천항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아 항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해운, 항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국가 중추 핵심 물류기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인천항을 국가의 핵심 물류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인천항만공사 개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명칭	인천항만공사
한자 명칭	仁川港灣公社
영문 명칭	Incheon Port Authority
설립일	2005년 7월 11일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기업 분류	시장형 공기업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

2020년 이전한 송도 신사옥

2030 비전

Leading Complex for Logistics & Maritime Services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복합가치공간

2030 경영목표

컨테이너 물동량 **500만 TEU**	미세먼지 저감률 **60%**
재난안전 관리지수 **1등급**	해양관광여객 **500만 명**

설립근거법

항만공사법 제1조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인천항 주요 운영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자산 규모 **3조 2,761억 원**

매출액 **1,475억 원**

직원 **275명** (정원기준)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327만 TEU**

전체 물동량 **152백만 톤**

카페리 항로 **10개 항로**

정기컨테이너 항로 **61개 항로**

주요 연혁

2003 항만공사법 제정

2005 인천항만공사 설립

2013 인천항 연안여객 100만명 돌파

2015 인천신항 개장 및 미주항로 개설

2017 인천신항 완전개장 및 개항 이래 최초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 TEU 돌파

2019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

2020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왼쪽사진부터 2020, 인천항만공사 창립 15주년 기념식 | 2013, 인천항 연안여객 100만명 돌파 | 2015, 인천신항 개장 | 2017, 인천항 300TEU 달성 기념식 | 2019, 크루즈터미널 개장 | 2020,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항만 및 시설

인천항은 총 27km로 61개 정기 컨테이너 항로와 10개의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인천항 전체물동량 152백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 원부자재 종합항만
북항

인천북항은 원목, 고철, 사료용 부원료 등 산업 원부자재 화물을 취급하는 종합항만으로 총 26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6개 6,421m
선석수·부두길이

-14m
박지수심

13,970천 톤
하역능력

원목·고철 등
취급품목

컨테이너 중심항만의 시작
남항

인천남항은 4,000TEU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모래 등을 취급하는 일반부두가 있습니다.

30개 4,262m
선석수·부두길이

-14m
박지수심

76만 TEU 1,761만 톤
하역능력

컨테이너 등
취급품목

아시아 최대 규모
갑문

갑문은 최대 9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197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천항의 내항은 갑문이 있어 항상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동차, 정밀기기 등의 하역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여행의 동반자
연안여객터미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서해도서지역을 잇는 항로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00톤
선박규모

-6.5m
박지수심

정온수역의 다기능 부두
내항

갑문을 기준으로 안쪽에 해당되는 인천내항에는 1974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로 건설되었습니다. 43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자동차, 양곡, 잡화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43개 9,405m
선석수·부두길이

-7m ~ -12m
박지수심

3,816만 톤
하역능력

자동차·잡화 등
취급품목

동북아 물류교역의 거점
신항

인천신항은 무인 자동화 크레인 등 최신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최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컨테이너부두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000TEU급 선박이 접안가능한 컨테이너 전용부두 6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1,600m
선석수·부두길이

255만 m²
배후단지

216만 TEU
하역능력

-16m
박지수심

해양문화의 거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 크루즈터미널

인천항과 북중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인천항은 해양관광의 거점항으로 도약합니다.

8개 1,976m
선석수·부두길이(크루즈겸용 선석 포함)

-8m ~ -12m
박지수심(크루즈겸용 선석 포함)

카페리 3만 ~ 5만 톤급
크루즈 22.5만 톤급
접안능력

최적의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물류사업의 전진기지
인천항 배후단지

인천항만공사는 지속적인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최적의 기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인천항 이용고객에게 눈부신 미래를 약속합니다.

3,025천 m²
항만배후단지 현황

3,799천 m²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단위 : 천 m²

구분	현황	개발계획	계
아암물류1	962	-	962
아암물류2	673	1,898	2,571
북항(남측)	565	-	565
북항(북측)	173	-	173
신항(1-1, 1-2)	652	1,901	2,553
합계	3,025	3,799	6,824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

*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한 개를 여러 업체가 동시에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

* 박지수심
항내와 항외에 각종 선박이 정박 대기하거나 수리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수심

비즈니스 모델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인프라 건설 및 유지보수,
항만 운영, 항만 물류,
항만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항만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항로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여
인천항을 환서해권의
물류 중심 항만, 해양관광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 건설 및 유지·보수

항만인프라 개발

신규 부두·항만배후단지
공급 및 조기 활성화로 물류기능
인프라를 확보합니다.

대표사업

-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
- 아암물류 2단지 조성
- 인천북항(북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사업

항만시설 유지보수

노후화되는 항만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유지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대표사업

- 인천항 내진성능 강화사업
- 신규 인프라 이용 편의성 개선

항만 운영

지속가능 항만 운영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만 맞춤형 부두운영 개선,
친환경 항만운영을 실현합니다.

대표사업

- 컨터이너부두 생산성 제고
- 미세먼지 배출 저감
-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화

항만 재난 관리

항만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항만 보안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대표사업

- 재난·안전 사고 발생 최소화
- 안전활동 수준 고도화
- 항만보안 대응능력 강화

여객터미널 운영

크루즈 및 카페리 관광상품 개발,
타깃 마케팅 등으로 인천항을
국제 해양관광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고
여객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업

- 연안여객터미널 및 부두
-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 크루즈터미널 및 부두
- 인천항 여객유치 활성화

항만 물류

항로 및 화물 유치

항만수요 창출을 위해 신규항로 유치,
중국 카페리 화물 확보, 미주항로 활성화 등
다각적인 화물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사업

- 국내 선·화주 대상 마케팅 활동
- 해외 마케팅 및 국제교류 추진
- 인천항 온·오프라인 홍보

배후단지 활성화

전자상거래 허브 경쟁력 강화 등
고객 중심형 고부가가치 항만 배후단지 구축을
위한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대표사업

-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 콜드체인 입주기업 유치
- LNG 냉열이용 냉동·냉장 클러스터 조성사업
- 인천항 신규 입주기업 모집

항만 정보화

스마트항만 기반 구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항만 및 항만물류시스템을 구축합니다.
ICT 서비스 운영 및 관리사업,
해운항만물류 등 통합정보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표사업

-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시설 관리운영 사업
- ESPS(Everything for Smart Port Service) 구축사업
-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
- 전자전표 시스템 구축
- 정보보호 강화사업
-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글로벌 항로

인천항은 언제나 최상의 인프라와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 비즈니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길의 시작을 알리고 고객의 성공을 여는 첫번째 항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대동맥 인천항

A 중국 지역

대련, 잉커우, 단둥, 위해, 천진, 연태, 청도, 친황다오, 연운강, 다펑, 장자강, 상해, 닝보, 타이창, 장인

B 일본 지역

히비키신코, 하카타, 모지, 도쿄, 치바, 요코하마, 나고야, 시미즈, 오사카, 와카야마, 고배, 미주시마

C 남중국 지역

푸칭, 타이베이, 기룽, 타이총, 카오슝, 친저우, 샤먼, 옌톈, 서커우, 홍콩, 난사

D 동남아 지역

세부, 마닐라, 바탕가스, 카가얀데오로, 다바오시티, 하이퐁, 다낭, 호치민, 시아누크빌, 방콕, 람차방, 페낭, 파시구당, 포트클랑, 싱가포르, 탄중펠레파스, 자카르타, 수라바야, 쿠안탄

E 러시아 지역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F 아프리카 지역

로메, 테마, 라고스, 온, 틴칸

G 미주 지역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롱 비치

주요고객사

KMTC, DOOWOO, PAN OCEAN, 범주해운, HS LINE, CK LINE, WAN HAI LINES LTD., MAERSK, SINOKOR, TAIYOUNG SHIPPING, HEUNG-A LINE, HMM, 동진상선, SM LINE, T.S. LINES, SITC, PIL, DONG YOUNG SHIPPING, NAMSUNG, msc, CNC, RCL, COSCO, GOLD STAR LINE LTD, Interasia, EVERGREEN, X-PRESS FEEDERS, OOCL

하이라이트

해상여객 인프라 개장

공사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2020년 6월 개장하였습니다. 연간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중국 카페리 10개 항로가 운항되며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은 연면적 6만 6,789㎡의 대형 건축물입니다.

인천항 국제여객부두는 3만t급 카페리선 6척, 5만t급 카페리선 1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으며, 22만5천톤급 세계 최대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 1선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대양의 파도를 형상화한 다섯 개의 곡선형 지붕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한 장애물 없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열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은 총 6,705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국내외를 잇는 인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현황

공사기간	2016년12월 ~2019년 6월(준공)
개장일	2020년 6월 15일
운항	연간 100만명 이용 10개 노선 한중 카페리 규모
규모	높이 36m(아파트 9층) 연면적 66,789㎡(축구장 9개)
부두현황	카페리부두 총 7선석(3만t급 6척, 5만t급 1척)

비전 및 전략

2030 중장기 전략 수립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해운항만 산업 환경의 대형화, 스마트화, 그린화, 글로벌 해양관광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적성장 추진 필요성 대두,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 차질, 환경·안전·소음 등 지역사회 대응 등 내부 현안도 대두돼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질개선과 자기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와 미래 생존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지향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사는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와 미래 생존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지향점을 설정하였습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 방향

공사는 경제적 성장 및 기여를 강조해온 인천항의 미래상에 안전·환경 및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하여 2030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사는 물류, 해양, 관광, 환경보존, 지역기여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Leading Complex for Logistics & Maritime Services(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복합가치공간)”으로 도약하겠습니다.

VISION

Leading Complex for
Logistics & Maritime Services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복합가치공간

CORE VALUES

PATH to WORLD!
“세계로 향하는 인천항”

PASSION 열정
ABILITY 전문성
TRUST 신뢰
HARMONY 조화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성장

인천항만공사의 2030 전략은 ‘동북아 대표 물류·해양관광 허브’,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국민공감 중심 경영체계’의 3대 전략목표 및 16개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총 50개의 세부과제를 업무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가치로서 ‘Path to World (세계로 향하는 인천항)’을, 경영방침으로 안전환경, 지역사회 기여, 직원행복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IPA 해룡이·해린이

해룡이와 해린이는 동북아 지형을 형상화한 용을 테마로 바다와 물에 관련된 수룡 또는 해룡을 디자인한 공사의 캐릭터입니다. 적극적이고 씩씩한 이미지로 공사의 비전을 표현하고 있으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마스코트의 표정은 인천항의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경영 목표

컨테이너 물동량	해양관광여객	미세먼지 저감률	재난안전 관리지수
500만 TEU	500만 명	60%	1등급

전략 과제

4차산업·국민행복 기반의 동북아 대표 물류·해양관광 허브	안전·환경·상생 기반의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윤리·혁신·소통 기반의 국민공감 중심 경영체계

실행 과제

4차산업·국민행복 기반의 동북아 대표 물류·해양관광 허브	안전·환경·상생 기반의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윤리·혁신·소통 기반의 국민공감 중심 경영체계
디지털 뉴딜 기반 항만인프라 조성 • 4차산업 신기술 적용 항만 인프라 적기조성 • 글로벌 LEVEL 완성형 스마트항만 구현 • 지능형 플랫폼 기반 항만운영체계 최적화	**그린 뉴딜 기반 친환경 항만 실현** • 신재생에너지 기반 항만 에너지 친환경·자급화 • 친환경 항만 장비 도입 및 연료전환 확대 • 항만 밸류체인 기반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사람중심 혁신적 기업문화 구축** • 전략적 조직운영 기반 전문성 강화 • 직무 기반 보수체계 및 공정한 성과평가 • 소통협력 기반 융합형 조직문화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물류사업 고도화 기반 신규 물동량 증대 • 인천항 특화형 물류모델 추진 본격화 • 글로벌 해운·항만 네트워크 활성화 • IPA 맞춤형 해외사업 다각적 추진	**항만 연계형 포용경제 견인** • 포용적 민간 일자리 창출 및 공정경제 선도 • 일하는 방식 혁신 기반 공공일자리 창출 • 중소 및 사회적기업 지속성장 토대 구축 • 스타트업 육성 기반 혁신성장 실현	**인권 기반의 윤리경영 강화** • 열린 준법·청렴·윤리 문화 확산 • 적극행정 활성화·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 사회형평적 인사 기반 사회통합 실현 • 차별 없는 인권중심 인천항 일터 조성
고품격 해양관광 생태계 조성 • 해양문화도심 랜드마크(골든하버) 조성 •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운영 활성화 • 크루즈 터미널 주변 활성화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항만 재개발** •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 연안항 부두시설 리뉴얼	**열린 혁신경영 기반 확대** •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및 혁신문화 조성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극 추진 • 전문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해양관광 수요 적극 창출 • 월드 크루즈 모항 유치 및 항차수 확대 • 항로별 맞춤형 카페리 상품 개발 • 연안여객터미널 확장 및 섬 관광 활성화	**국민안전 중심 항만생태계 구현** • 안전관리 다각화 • 인항만시설물천항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 무결점 항만보안체계 구축	**사업 책임경영 내재화** •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관리 • 전략적 사업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제적 가치
● 환경적 가치
● 사회적 가치

경영 방침

안전환경 | 지역사회 기여 | 직원행복

PART 2

MOVING TOWARD
SUSTAINABILITY

든든한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갖춘 IPA

지배구조 26

이해관계자 참여 28

사회적 가치 실현 30

중대성 평가 32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비상임위원 중심의 이사회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항만위원 전문 분야별로 경영제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은 정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정관의 변경 및 주요 내규의 제정·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항만위원회 구성은 항만공사법에 의거하여 상임위원을 두지 않고,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직의 정책 결정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참석률

이사 선임절차 및 임기

항만위원 선임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해운, 물류, 토목, 회계,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항만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 평가와 그 외의 다양한 실적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항만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이사 전문성·다양성 강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다양성·성별 균형 확보를 통해 맞춤형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항만위원들은 경영 리스크 또는 경영 전략 전문분야 현안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을 제시하며,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경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항만위원 전문 분야

구분	
해운물류	2명
법률	1명
교수	3명
회계	1명
총계	**7명**

| 상임이사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임기	주요 경력
최준욱	남	기관장	20.03.18 ~ 23.03.17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홍경선	남	경영부사장	18.04.13 ~ 21.04.1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특별보좌관
이정행	남	운영부사장	18.04.13 ~ 21.04.12	현대상선(주) 상무
홍성소	남	건설부사장	20.11.09 ~ 22.11.08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계획담당

| 항만위원회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임기	현업
송인수	남	항만위원장	19.04.30 ~ 22.04.29	인덕회계법인 이사
김병화	남	비상임이사	19.04.30 ~ 22.04.29	(전)대우로지스틱스 중부지역본부장
김병일	남		19.04.30 ~ 22.04.29	한국항만연수원(인천) 교수
여기태	남		19.06.10 ~ 21.06.09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노희정	여		19.06.10 ~ 21.06.09	노희정 법률사무소 대표
문해남	남		20.12.14 ~ 22.12.13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숙영	여		20.12.14 ~ 22.12.13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 조교수

항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소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결과를 항만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항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전문 분야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경영 자문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영 건전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경영진 견제를 통한 책임경영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명	구성	의견 개진	주요 성과
기획예산위원회	4명	코로나19로 어려운 항만업계 지원 확대	사용료 감면 등 200.6억 원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변경 검토	항만시설사용료 기준 명확화로 연 30억 원 추가 징수
감사위원회	3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따른 감시 강화	공정거래 준수 여부 일상감사 실시(2회)
임원추천위원회	7명	임기 만료(부사장, 2인)에 따른 적기 선임	적시 대응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사전 구성
안전경영위원회	3명	인천항 종사자 안전을 위한 권리 강화	항만업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 체결(31건)

| 주주 구성

단위 : %
(2020년 12월말 기준)

이사회 관리

인천항만공사는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견제 및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참석률, 경영제언 및 발언 비중 등 이사들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관리하는 이사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경영 참여

인천항만공사는 근로자 참관제 단계적 추진을 통한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자대표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참관 기회 및 발언권을 확대하는 등 의사 결정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통합 의사결정

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을 경영활동에 통합하기 위해 공사 운영 의사결정 시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내부 전담조직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경영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에서는 공사의 장기적 발전과 이해관계자 이익, 사회적 영향성 등 지속가능성을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주요 지속가능경영 이슈로 안전기본계획 및 책임, 동반성장 투자,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고압 육상전원공급시설(AMP) 관리운영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 방향

인천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정부를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그룹 각각의 기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경영 전략과 실천에 반영하고, 이러한 과정을 동반성장의 발판으로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공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포용·혁신·공정의 인천항 조성'을 소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외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언제·어디서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천항 소통지수

2018	93.24점
2019	94.05점
2020	95.42점

2020 국민소통프로젝트 '아이디어 전달海'

국민참여 소통 프로젝트 '소통海'

인천항만공사는 국민과 인천항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인천항 주요 현안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제도나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국민 참여 소통 프로젝트 '소통海'와 더불어 다양한 소셜네트워크(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소통海'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이디어 전달海'를 통해 접수된 493건의 아이디어 중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인천항 15대 국민소통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대 국민 소통과제는 내·외부위원을 통해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됐으며,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비대면 고지서 발급용 키오스크 설치 ▲중소기업 대상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지원 ▲IPA 친환경 사업 안내 콘텐츠 제작 등 15건으로, 아이디어 실현과정이 공개되도록 소통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식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집중 관리

공사는 정책, 항만 재개발, 지역 관심사항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지속적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극복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을 2020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제안서는 시민설문조사, 자문위원회, 유관기관TF, 시민단체 간담회 등(총 14회)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지자체·주민·시민단체·항만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소통활동

추진실적

코로나19에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해 온라인 채널 강화

온라인 채널 비중 증가		소통을 위한 채널 증가		
2019	15%	2019	87개	온라인 13개 / 오프라인 74개
2020	38%	2020	99개	온라인 38개 / 오프라인 61개

인천항 이용자	국민과 지역사회	임직원
이해관계자 선사, 부두운영사, 화주 등	**이해관계자** 국민, 지역주민, 정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IPA 임원, 근로자, 노동조합 등
관심사항 항만물류/해양관광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관심사항** 항만-지역의 조화로운 개발, 코로나19에도 안전한 항만-지역	**관심사항** 임직원 간 주요 현안 공유, 일과 가정의 양립
온라인 채널 전환 및 신설 규제정비단, 크루즈협의체 등	**온라인 채널 전환 및 신설** 1·8부두 재개발 위원회, 재난안전서포터즈 등	**온라인 채널 전환 및 신설** CS Innovator, 행복전달자 등
14개 채널	9개 채널	2개 채널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포용·혁신·공정의 인천항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구현

인천항만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환경영향 저감, 지역사회 활성화 등 정부 핵심국정과제를 전략목표에 반영하여 공공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공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전략을 수립, 이행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략과제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협력사 동반성장,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자(Social Value Creator)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경영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사은 해당 측정 방법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측정 방법론은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측정원칙 및 방법

공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은 공사가 추진하는 사회적가치 중점 추진 활동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는 바를 지역사회·환경 측면에서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공사의 사회적가치 주요 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인천지역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인 I-SEIF를 통한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 효과, 미세먼지 저감 개선 성과,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성과 등에 대한 사회적가치 측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사는 측정 값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가치 측정 과정에서 객관성, 보수성, 직접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측정원칙

객관성	보수성	직접성
사회적가치 측정에 필요한 화폐 기준 값은 공신력있는 국제기구, 정부, 유관단체 등에서 발표하는 공식 수치 적용	측정된 사회적가치 값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과대계상을 예방하기 위한 보수적 측정	공사의 경영활동이 공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실제적 결과로서의 직접적 영향의 측정을 지향

1) 2020년 최저임금 월지급액 기준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오염물질 오염원별 피해비용 산정, 2019
3) Frances C. Moore and Delavane B. Diaz, 2015 : Nature Climate Change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인천항만공사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보고 원칙인 '지속가능성 맥락', '중대성', '이해관계자 참여', '완전성'에 따라 본 보고서의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IPA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중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적 지속가능경영 트렌드와 기업의 비전 및 전략, 글로벌 항만업계 산업이슈, 미디어 노출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IPA의 중요 이슈로 도출된 이슈는 10개 이며 4개의 핵심 보고주제를 구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STEP 01

지속가능경영 이슈 취합

-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성 이슈 수집
- GRI Standards기준 45개 지속가능성 기본 이슈 구성

STEP 02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 UNGC, ISO 26000, DJSI, UN SDGs, SASB 등 국제표준 보고 요구사항 검토
- IPA 주요 기사 및 이슈 미디어 노출 총 538건

STEP 03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

- 경영평가보고서 등 내부 자료 분석하여 공사 지속가능성 현황 파악
- 국내·외 항만산업 보고서를 벤치마킹하여 동종산업 내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분석

STEP 04

우선순위 도출

-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를 중요성 매트릭스를 통해 중요 토픽 도출
- 각 중요 토픽별 우선순위 이해관계자별 보고범위 결정

STEP 05

보고 프레임워크 결정

- 중요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토픽에 대해
  당해 년도 성과와 중장기 방향성을 종합하여 보고 컨텐츠 구성
- 주요 데이터를 시계열 추이를 포함하여 정성·정량 성과를 체계적으로 보고

중대성 평가 Matrix

	중대 이슈	GRI Topic	UN SDGs
혁신과 스마트 기술로 도약하는 인천항	1 항만인프라 경쟁력	경제가치 창출과 배분	8, 9, 11
	10 스마트 항만 구축	-	
안전하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항만	2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대기배출	3, 13, 14, 15
	3 클린 에너지 전환	에너지	
	7 해양오염 저감	-	
	4 근로자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8 통합 재난 대응	제품·서비스 안전보건	
공유가치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5 협력사 상생경영	-	8, 9, 11
	6 사회적 가치 실현	간접경제효과	
사람중심 소통과 협력	9 인권존중	인권영향평가	4, 5, 10, 16

PART 3

MOVING TOWARD
A BETTER FUTURE

혁신과 포용으로 도약하는 IPA

혁신과 스마트 기술로 성장하는 인천항 36

안전하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항만 46

공유가치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58

사람중심 소통과 혁신 70

혁신과 스마트 기술로 성장하는 인천항

Topic Backgrounds

최근 항만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쟁은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항만 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만의 기능은 갈수록 다기능 복잡화되어가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산업 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만 물류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통신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항만은 항만의 자동화를 포함하여 물류 최적화,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및 배후도시와의 연계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Our Approach

인천항은 동아시아 대도시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글로벌 항만 산업의 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지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항만 조성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Link to SDGs

8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11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IPA 2030 Strategy

디지털 뉴딜 기반 항만인프라 조성

- 4차산업 신기술 적용 항만 인프라 적기조성
- 글로벌 LEVEL 완성형 스마트항만 구현
- 지능형 플랫폼 기반 항만운영체계 최적화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항만 재개발

-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 연안항 부두시설 리뉴얼

물류사업 고도화 기반 신규 물동량 증대

- 인천항 특화형 물류모델 추진 본격화
- 글로벌 해운·항만 네트워크 활성화
- IPA 맞춤형 해외사업 다각적 추진

고품격 해양관광 생태계 조성

- 해양문화도심 랜드마크(골든하버) 조성
-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운영 활성화
- 크루즈 터미널 주변 활성화

해양관광 수요 적극 창출

- 월드 크루즈 모항 유치 및 항차수 확대
- 항로별 맞춤형 카페리 상품 개발
- 연안여객터미널 확장 및 섬 관광 활성화

Interview

박두진 _ 동명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석에서 이송구간, 컨테이너 장치장에 이르는 운영 과정을 AI,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완전무인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인력 및 에너지 비용 등 운영비용 절감,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24시간 항만을 안정적으로 운영, 항만 인재 사고 위험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운영사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국내의 높은 IT 기술력을 활용한 항만물류 정보공유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물류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해 나가길 제안합니다.

Key Performance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327만 TEU

개항 이래 최대 실적으로 전국 주요 항만 중 유일한 물동량 증가 달성

배후단지 부가가치

1,706억 원

신사업모델 발굴, 물류흐름 개선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6개

비대면 마케팅 환경 구축 등으로 신규항로 목표 초과 달성

항만건설공사 공정률

100%

배후단지(140만㎡) 공급으로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 목표 공정률 달성

성장하는 항만

신규항로 유치
4년 이래, 최대 6개

국내 항만
전자상거래 화물처리
7년 연속, 1위

| 인천항 전자상거래 화물처리량
단위 : 톤

항로 및 화물 유치

신규 항로 개설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운 수급 불균형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 4년 이래 가장 많은 신규 항로 유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해운 선복량 감축, 항공편 축소,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해운 수요 상승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대형선사인 머스크, MSC 등 및 6개 신규항로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미주항로 안정화 노력을 통해 결항차수를 75%까지 감소시키며 운영 안정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수출입 화물 유치

인천항 제1~2위 교역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경기 부양책 확대에 대응하여 공사는 수출용 원자재 화물 등을 포함한 대중국 교역화물을 추가 유치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량이 전년 대비 9만TEU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아암물류2단지 내 이커머스 클러스터 공급과 전자상거래 화주 인센티브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인천항은 7년 연속 전국 1위 전자상거래 교역항만 입지를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역하는 일반 컨테이너 및 리퍼(냉동냉장) 컨테이너 화물유치 노력을 확대하여 베트남간 교역이 9.1%(3만TEU), 동남아간 전체 교역이 5.0%(3만TEU)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의 新 남방지역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규시장 개척·환적화물 유치

인천항은 수입 위주의 교역 구조와 지리적 한계로 환적화물 창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중국의 원자재 수입의 증가, 중국 내 공항 봉쇄 등 환적화물 창출에 유리한 기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동남아~중국·국내 환적은 물론, Sea & Air(해공복합운송) 환적화물 유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항 기항 선박 교체를 유도하여 환적 실적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개항 이래 가장 많은 환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항이 서해안 항만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동남아 항로수를 바탕으로 경쟁항만보다 저렴한 항비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 힘입은 것으로, 이를 통해 인천항은 기존의 약점을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물동량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객 수요 기반 제도 개선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고객 이탈 방지는 물론 신규화물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필리핀발 선박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선대 이탈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소와의 협조를 통해 비접촉식 하역지침을 마련하였고, 연 8만TEU의 이탈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정책변화로 FTZ(자유무역지역) 내 외투기업이 사업을 중단할 뻔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FTZ내에서 제조가공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외투기업이 인천항 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수요에 맞춘 물류환경 개선으로 지속적 물동량 창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 컨테이너 부두 생산성(V/H)
단위 : %

컨테이너크레인 작업 표준신호 일부

항만운영 효율 증대

터미널 운영프로세스 분석

인천항만공사는 물류 정체요소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으로 항만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프로세스 분석으로 생산성 저해 요인을 발굴하여 2020년에는 하역작업 지연요건, 하역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25개의 과제를 도출하여 컨테이너부두 생산성이 전년대비 2.2% 상승한 47.40V/H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 항만 운영

인천항에 계류하는 선박의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인천항 항내 계류 선박 관리'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인천항 계류 선박 6백여 척에 대해 전수조사, 운영매뉴얼, 관리절차, 해양경찰·지자체·해양안전공단 등의 기관과 협업하고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해수부 우수모델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선박운항을 위한 수역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곡물운반선 대형화로 인한 내항 입항이 제한됨에 따라 저수심 구간 긴급 암석제거, 수위 예측모델 적용 등을 실시하고, 원유 부두 앞 수심 제약으로 대형선 입항이 어려워지자 전문가 진단과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개선을 통해 전년대비 원유 1.2백만 톤이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컨테이너크레인 하역신호체계 표준화

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연수원은 항만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컨테이너크레인 하역 신호표준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터미널 운영사마다 각기 혼용하여 사용하던 컨테이너크레인 하역신호를 항만 최초로 표준화하여 신호수 -장비기사 간 작업 혼선과 소통 오류 가능성을 대폭 줄여 신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컨테이너크레인 총 6개 작업에 대한 30건의 세부신호가 표준화되었으며, 표준화 건에 대한 내용은 리플렛과 포스터 등의 교육자료도 제작되는 것은 물론, 인천항 항만근로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만안전에 위협이 되는 신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 항만 현장이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프로세스

배후단지 활성화

배후단지 특성화 공급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신규 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항 복합물류단지 23만㎡를 공급하고 100% 계약체결을 완료한데 이어, 특화구역 사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신항 복합물류 및 콜드체인 특화구역 46만㎡ 공급을 통한 중장기 배후단지 공급계획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배후단지 면적당 고용실적
단위 : 명/천㎡

| 배후단지 부가가치
단위 : 억 원

| 배후단지 특성화

콜드체인 특화구역
LNG냉열
재사용 혁신물류
콜드 체인
신항배후단지
23만 ㎡

이커머스 특화구역
첨단 스마트
풀필먼트 물류
전자 상거래
아암물류2단지
25만 ㎡

목재클러스터 단지
고부가가치
목재 가공 산업
고품질 목재
북항배후단지
12만 ㎡

복합물류단지
Just In Time
물류 활성화
복합 물류
신항배후단지
23만 ㎡

민간제안 배후단지 기업유치

공사는 배후단지가 혁신 성장거점이자 스마트 항만의 중추로서 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新 배후단지에 기업 유치를, 舊 배후단지에 투자 확대로 균형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화구역에 투자유망 기업이 직접 제안을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콜드체인 단지에는 7개사가 12만㎡ 5,333억 원의 투자 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단지에는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풀필멘트센터 등 1,456억 원 규모의 투자제안 접수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첨단공동물류 단지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적용하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배후단지에 스마트 물류, LNG 콜드체인, 복합물류에 대한 9,93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입주기업 경영여건 개선

배후단지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이 법령 대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수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인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 30% 이상을 20%로 완화하였으며, 연체료·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지연이자를 최대 연 15%에서 10%로 낮추어 부담을 완화해주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등 상호협의에 기반한 수평적 계약모델을 신설하여 배후단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정과 상생의 계약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항만
발전 실행과제

2020~2023
자동화

2024~2027
지능화

2028~2030
초연결화

스마트 항만 기반 구축

스마트 항만 추진 배경

스마트 항만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근간으로 항만 물류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항만(Robotic Port), 항만 내 자원들의 초연결을 통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예측, 전달과 실행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Intelligent Port)으로 크게 정의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SOC 디지털화와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추진전략'의 스마트 항만 구축 정책에 따라 인천항의 디지털 항만 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 기반 구축

인천항은 수도권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 중심의 차별화된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기술 도입으로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는 ICT, IoT, AI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는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항만, 친환경 항만, 안전한 항만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항만 내 모든 장비의 정보교류 및 연계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인천항 발전 방향

IPA 역할			
추진노력	**디지털 항만 생태계 구축**	**특화기술과 지역사회 가치공유**	**4차 산업기술 활용 안전한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자동 검색 시스템 개발	항만특화 친환경 기술개발 활동 확대	시설점검용 K-드론 국산화 및 스마트 시설물 관리 시스템 개발
	드론활용 물류창고 재고조사 자동화 서비스 개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치 다변화	4차 산업기술 융합형 항만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 추진
발전 방향	**자동화** 2020~2023년	**지능화** 2024~2027년	**초연결화** 2028~2030년
	자동차 기술 도입 컨테이너·물류창호	**친환경기반 기술 고도화** 신재생e·대기질	**첨단기술기반 안전강화** 노후시설물·작업자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에너지 최적운영 플랫폼	지능형 항만 안전·보안 플랫폼
	디지털 트윈 가상 항만 구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안전센터 구축
	물류흐름 최적화 실현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현	도시-항만 연계 안전관리 대응

항만물류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공사는 디지털 항만을 위해 항만물류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모든 주체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인천항의 이해관계자를 데이터 수요자·공급자·분야별 전문가로 분류하여 각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화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와 데이터 클라우드, 물류 데이터 보안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물류 주체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은 물론, 물류 데이터를 통한 물류 신산업 창출, 물류정보의 공유 기술 국산화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기반 컨테이너 검색 정보 플랫폼 개발

항만 특화 K-드론 기술 개발

인천항의 노후화로 시설물 점검 시간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자연재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사는 항만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향상을 위해 스마트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만 환경에 최적화된 K-드론 기술을 개발해 항만 인프라 관리 이력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항만 시설물 선제 점검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핵심부품을 100% 국산화해 150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만안전 혁신기술 확대

타 산업 대비 높은 항만안전사고 재해율을 극복하고 항만 작업자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기 위해 ICT, IoT 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항만근로자 안전 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와 장비의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위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는 것은 물론, 알람 경보로 알려줌으로써 항만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혁신기술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ICT·IoT 기반 항만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도약하는 항만

인천신항 전경

항만 인프라 경쟁력 제고

신규 항만 인프라 건설

인천항만공사는 신규 항만 인프라 적기 건설을 목표로 신규 부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은 2020년 역대 최대 물동량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사는 늘어나는 물동량 증가에 비해 하역 능력은 2025년에는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항 최대 프로젝트 인천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신항은 송도 국제도시 남측 전면 해상에 2025년까지 신항 1-2단계(1,050m, 138만 TEU 하역능력)와 넓은 배후단지를 추가 개발하여 수도권 산업단지의 수출입 지원 및 유통 기지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인천신항 배후단지 건설 개요

사업목적	신항 1-1단계 '컨'부두 개장에 따른 안정적인 물동량 처리와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 배후단지 확충
사업기간	2015년 ~ 2025년
총사업비	4,576억 원
사업내용	배후단지(255만m^2) 조성 • 1구역 66만m^2 • 2구역 94만m^2 • 3구역 54만m^2 • 1-2단계 41만m^2

| 인천신항 계획평면도

무인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공사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에 선박 대형화와 생산성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국내 최대 규모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은 안벽 크레인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야드 트랙터 대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무인이송장비(AGV)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운반합니다. 또한, 안벽 접안 가능 능력을 최대 3만 TEU로, 박지수심을 19.5m까지 확보하여 대형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계획 대비 6단 적재가 가능한 지반 개량, 교통여건 물류 흐름 개선 등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하역능력과 시설 확보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자동화 '컨'터미널의 생산성 극대화

구분	장애요인	개선노력	성과
장치면적	• 터미널 장치장 면적 협소 →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난항 → 터미널 생산성 저하	• 최대 장치장 하중 설계(10톤/㎡) • 안벽 생산성, 장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장치장 24블럭 수직 배치	• 터미널 하역능력 30% 향상 (변경 후 : 180만TEU)
교통정체	• '컨'터미널 주변 상습 교통 정체 → 항만 이용자·시민 불편 → 항만시설 부정적 시각 고착	• 운영계획 고려한 Gate 위치 차별화 • 터미널 內 운송차량 대기차로 600m 확보 등 동선계획 변경	• '컨'운송차량 대기율 0% → 물류 정체 제로화 • 항만시설 긍정적 인식 제고
통합운영	• 터미널 간 시설 계획 상이 • Gate 이원화로 비효율 발생	• I-1단계 크레인 레일 150m 연장 • 터미널 간 화물 환적 공간 확보	• 기존 인프라 활용 극대화 • 터미널 통합 정책 선제적 대응

Golden Harbor Project

2019
크루즈 터미널 개장

2020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2020.02
골든하버 조성 공사 준공

'내항 재개발' 기대효과

생산 유발효과
1조 5,46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551억 원

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

언택트 투자유치 골든하버 개발 사업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인천항이 위치한 송도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배후부지에는 바다와 도시가 공존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해양복합 관광단지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공사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핵심시설인 크루즈 터미널이 2019년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2020년에 개장함에 따라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골든하버 조성 공사 준공하였으며, 공원 관리방안 확립, 유관기관 상업용지 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투자유치로 유력 잠재투자 기업 발굴을 완료함으로써 골든하버를 통한 시민 친수공간 조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내항 재개발'

인천항만공사는 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 숙원사업인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3년간 표류한 내항 재개발 사업을 지자체, 자문위원회,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만재개발 사업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한 인천내항은 이제 역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해양문화 도심공간으로 변모하여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공사는 인천내항을 공공시설 비율 50%이상 확보, 원도심 단절 해소, 특화 친수시설 확보,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해양문화관광단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내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 사업은 해양문화지구, 복합업무지구, 열린주거지구, 관광여가지구 등 5개 특화지구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고품격 수변공간 조성과 원도심 상생발전을 달성할 것입니다.

골든하버 프로젝트

SOCIAL VALUE 1.
비대면 디지털 항만서비스로 고객만족

인천항만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동시에 항만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물류 가시성 확보를 위해 고객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항만업계 최초로 카카오톡 고지결제 서비스와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고지 결제 서비스

인천항 화물차 운전자 편의 향상을 위해 우편으로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카카오톡(SNS)으로 제공하는 카카오톡 납부·알림 서비스를 2020년 6월에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재발급 및 민원응대 시간을 감소하는 것은 물론, 연간 미납액 5천만 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카카오톡 결제 서비스는 업무처리의 디지털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을 향상한 성과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주관 '항만운영 혁신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I 기반 챗봇 서비스

공사는 인천항 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AI 기반 민원 서비스 챗봇(Chat + Robot)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챗봇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채팅 화면에서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대화형 메신저 소프트웨어입니다. 매년 여객터미널에 접수되는 전화 민원은 연간 5만여건에 달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공지능(AI)·머신러닝 챗봇 도입으로 고객에게 24시간 실시간 및 다대일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행정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제공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현황 분석	제한적 고지서 수령·결제 여객터미널 정보 산재	행정처리 시간·비용 과다발생 정보 습득의 물리적 한계 존재	이동 中 수령·결제 가능 모바일 서비스 시·공간 제약없는 민원서비스

	고객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추진 방향	오프라인 중심민원처리 → 고객의 시각에 맞춤	디지털 신기술(AI, 빅데이터 등) 적용 인프라 개발·개선·운영	신기술을 적용한 편리하고 쉬운 서비스 고객지향적 서비스 품질 향상

안전하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항만

Topic Backgrounds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은 보건안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재난, 사이버 보안사고를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인천항은 항만 대기질과 미세먼지 저감, 저탄소 항만을 지향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양오염이나 항만 및 선박 규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항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물류 효율화와 국제 환경규제 적응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Link to SDGs

3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13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14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사용능력

15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Our Approach

국가경제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여 중단없는 항만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책무가 있습니다. 공사는 안전보건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등 다양한 항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항만 활동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PA 2030 Strategy

그린 뉴딜 기반 친환경 항만 실현

- 신재생에너지 기반 항만 에너지 친환경 · 자급화
- 친환경 항만 장비 도입 및 연료전환 확대
- 항만 밸류체인 기반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국민안전 중심 항만생태계 구현

- 항만시설물 안전관리 다각화
- 인천항 재난 · 안전 관리체계 강화
- 무결점 항만보안체계 구축

Interview

이향숙 _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최근 국제 해상운송 산업은 항만에서 기인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선박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AMP 고압전원 설치, 선박 저속운행,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2백만대 이상 출입하는 트럭 운송차량의 등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LNG트럭 도입, 부두 LED 조명장치 교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친환경 항만으로 더욱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ey Performance

인천항 재해발생지수	해수부 개인정보처리 실태	미세먼지 배출 저감률	에너지 자립도
1.25	최상위 등급	33.6%	31%
갑문 공사현장 추락사고 (2020년 6월)로 달성도 미달	정보보안 사고 및 개인 정보 유출사고 Zero 달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저감사업 이행으로 목표(10%) 초과 달성	신재생 에너지원 확충 및 지능형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로 에너지 자립도 향상

안전한 항만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인천항만공사는 자연재난·사회재난·산업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인천항 재난특성 분석을 통해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4일에 '4·4·4 안전점검의 날', 안전관리자협의회(하역현장, 건설현장)를 개최하는 한편, 분기별로 안전기본계획 점검,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경영위원회(반기) 등을 통해 안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확립

공사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실현하기 위해 예방에서 복구까지 단계별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 22301) 국제인증을 2019년에 취득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을 통해 핵심기능 중단에 따른 운영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예방하여 항만기능 재개시간을 단축하고, 항만피해 최소화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기능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선제적 예방	체계적 정비	신속한 대응	효과적 복구
실효적인 연간 재난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재난 유형별 매뉴얼 제정 및 관리 (풍수해 등 9종)	태풍 북상 등 상황발생 시 비상대책본부 운영	재난관리자원 비축 등 재난 복구능력 확보
재난안전 담당자 교육 이수 및 항만시설 예방 점검	재난대비 민·관·공 협력체계 구축 (노·사·민·정)	선박화재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 실시	재난안전분야 재정투자계획 확대 및 관리

가설건축물 화재취약분야 점검

선제적 재난대응능력 강화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최초 자체 자연재해영향성 평가를 통해 선제적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 대조기(조수) 등 자연재해 유형별 영향인자를 선정 및 영향성평가를 시행하고 시설물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진 대비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시설물 14개동 구조를 보강하고, 대조기 대비 침수위험 구간 증고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국민안전을 1순위로 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시설 화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가설 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화재위험 소방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선박화재 통합훈련, 건설현장 재난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객터미널의 소방시설 개선, 선박화재 긴급 대응공간 마련 등의 추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광범위한 항만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방재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화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공사는 2020년 6월에 발생한 갑문 보수공사 추락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공사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는 물론, 사고 원인 등 전 건설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발주처 책임강화, 시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반영, 근로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적용, 근로자 인식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도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외골격 로봇 도입

산재사고 예방활동 강화 교육

발주처 책임 강화
- 국내 최초 소규모현장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 전폭 개정
  - 소규모 현장점검 대상 확대 및 안전점검 규정 신설
  - 지적사항 환류 및 부적합 현장 제재기준 신설

시공사 이행개선
-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및 인건비 별도 산출 반영
- 근로자 보호 이행일지 및 현장 확인 사진 대지 제출
- 보호구 사용 및 작업조 역할 숙지 여부 확인항목 추가
- 안전관리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위험성 개선활동 계획 및 실적점검

근로자 행동보호
- 고소작업 현장 추락경고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및 추락사고 외 세분화된 사고유형별 안전장비 도입
- 근육 피로 경감도 높은 건설현장 외골격 로봇 도입

근로자 인식 개선
- 무재해 Count Board, 아웃트리거 식별용 스티커 부착 등 안전디자인 적용
- 긴급보수공사 기술지도 및 지정업체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 개인 보호구함 앞 '가장(家長) 기다리는 순간' 문구 부착 운영

안전소통채널로 개선과제 발굴

인천항만공사는 안전 최우선 문화 확산을 위해 CEO의 특별 안전교육을 임직원은 물론 부두운영사 임원 및 안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니즈를 반영한 안전소통채널로 안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취약근로자 보호,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하역안전장비 도입 등을 개선과제로 도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2019	85.5점
2020	90.5점

| 안전 소통 채널

구분	대상	논의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경영진 및 직원대표 각 5명	임직원 건강증진방안
안전근로협의체	협력사(자회사, 수급업체)	모기업과의 안전보건격차 해소
안전관리자협의회	민간 부두운영사	하역현장 안전위해요소 개선
아이디어 제안공모	임직원, 항만근로자, 대국민	인천항 안전개선과제 발굴

임직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사는 취약근로자 편의시설 개선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여 스트레스 고위험군 직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신, 육아, 기저질환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동안 고정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들은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

A등급 (상위 10%)

협력사와 안전보건 격차 해소

공사는 협력사와의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사는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적극 장려(예산 및 컨설팅 지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협력사 모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하였고,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A등급(상위10%)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장중심 하역안전 개선

항만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하역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1년 상반기 중에 화종별 하역안전매뉴얼 제작 및 배포 후 현장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소작업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IoT 기술을 활용한 하역작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화된 크레인을 사용연한 기준으로 정기 점검하여 하역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으로 2020년 하역현장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BARRIER FREE 우수 등급

취약계층 이용자 안전사각지대 해소

여객 이용자가 안전 사각지대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애 이용자가 선박 탑승 시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점자 표지판을 개선하였으며, 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 보행안전성이 취약한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로 이색 이질재료 공사와 횡단보도 경사로를 개선하여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항만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예비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시설물·건설현장 안전관리

공사는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및 건설현장의 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부두 및 호안, 여객터미널, 부잔교 및 함선의 시설별 취약점을 도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시설별 안전관리 강화

	부두 및 호안	여객터미널	부잔교 및 함선
문제인식	**수중부 육안점검 한계** 수중 계류시설은 간조 시만 확인 가능하며, 해면부 관측 한계	**터미널 보행로 침하** 인력접근 불가 상태확인 애로 육안으로 내부 손상원인 확인 불가	**함선 조절추 추락위험** 강풍 시, 함선 연락도교 조절추 추락 등 사고 발생가능 요소 발굴
	↓	↓	↓
개선노력	**수중로봇 안전점검 도입**	**GPR 지하탐사 시행**	**조절추 와이어로프 정비**
	신항 서측 부두 호안 이상구간 확인	매립층 내부 지반공동 여부 확인	와이어로프 안전성평가
		발견 이상구간은 없으나, 침하구간 보수개선공사 시행	부잔교시설 상시 유지관리
	구간 위해요소 재확인		스마트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항만보안 강화

전국항만보안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빈틈없는 보안 태세 확립

인천항은 국가중요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드론 등과 같은 신종 테러에 대비하는 등 항만보안 대응능력 강화가 크게 요구됩니다. 공사는 항만보안 3대 개선과제로서 보안장비·보안제도·보안인력 개선을 도출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보안장비 개선을 위해 안티드론 합동훈련 실시, 휴대용 선석감시기 운용, 지능형 보안모니터링 시스템, HD급 CCTV 구축 등 장비 현대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제도 개선으로서 항만출입증 위·변조 무단도용 처벌 강화, 보안시설 유지보수기간 단축을, 보안인력 개선으로서 보안근로자 자체 전문가 양성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 정보유출 사고

Zero 달성

원격근무 정보보안 고도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원격근무에 따라 정보보안체계를 고도화하여 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재택근무 시행으로 보안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보안위원회를 추진조직으로 하여 원격근무 체계를 구축,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문서 암호화 적용으로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화상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국가·공공기관 화상회의시스템(온나라)을 운영하여 비인가 화상회의시스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 보안체계 운영으로 정보유출 사고는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 분야별 맞춤 원격근무 보안강화

해양수산부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최상위 등급

국정원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5년 연속, A등급

정보보호 관리 강화

인천항 고객정보의 정보보호 관리 강화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으로 정보보안을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6,994건을 파기(전년대비 37%↑)하고 불필요 수집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국정원,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킹메일, DDoS 대응, 재해복구 훈련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관리 진단에서 각각 최상위 수준인 '양호' 등급을,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4개 항만공사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저탄소 항만

지속가능한 인천항 조성

친환경 비전 수립

인천항만공사는 정부의 친환경경영 정책을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목표와 해양 플라스틱 대응 등 친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관리를 통해 선박운항, 화물차량 운행 등 항만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 6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환경적 책임을 다하여 '맑은 하늘 깨끗한 바다가 지속되는 인천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정책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한국판 뉴딜 전략	2050 탄소중립
	배출량 35.8% 저감	해양폐기물 30% 저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ESG 경영기반 마련
업무영역 및 오염원	선박/부두 배출가스 비산먼지	하역/야적 배출가스 비산먼지	운송/도로 배출가스 비산먼지	배후단지 플라스틱 폐기물	해양/부유 플라스틱 폐기물
환경비전	맑은 하늘(미세먼지) 깨끗한 바다가(해양오염) 지속되는(UN SDGs) 인천항 조성			
환경보전 실행과제	항만 대기오염 저감	친해양·환경 항만 조성	친환경 녹색 혁신	
	오염원별 미세먼지 배출저감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이행	최초 친환경 재활용 방충재 개발	
	온실가스, 저탄소 인프라 확대	비대면 해양환경 보전문화 확산	플라스틱 활용 도로 보강재 개발	

기후변화 대응 전략

해양운송은 대량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부문이나 세계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해상운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항만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물동량에 비례함에 따라, 국내 감축목표인 BAU 대비 37% 감축 목표치 달성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비전	기후변화에 안전한 항만시설 운영		
전략목표	기후변화 적응 기반을 통한 안전한 항만 서비스 운영		
	기후변화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강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해양관광 자원 제공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해양 해수면 모니터링 강화
세부 추진 과제	항만시설 보수 및 개선공사	여객터미널 설비 보수 공사	인천항 해양수리현상 조사연구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강화	효율적인 터미널 관리 운영 및 서비스 개선	공사 기후변화 적응관리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항만시설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시스템 운영관리	조경시설 유지관리	

기후변화 대응

통합환경관리플랫폼 개발

인천항만공사는 일원화된 항만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 IoT, 드론 등 혁신기술 기반 통합환경관리 플랫폼(Port-CAMP)을 2019년에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ort-CAMP는 항만 에너지 사용 정보수집, 대기오염물질 정보수집, 대기오염 배출량 통합관리 등을 관리하며 과학기술부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공사는 분산·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지능형 신재생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3년간 항만에 분산된 신재생 발전설비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구축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유형별 발전 현황, 발전 수익, 운영 이슈, 운영비, 주요 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연구개발 성과로 2건의 기술특허 출원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만tCO2eq

구분	2017	2018	2019	2020
직접배출	61	42	41	26
간접배출	146	113	107	127
총량	207	155	148	153

| AMP 설비 이용실적
단위 : 천kWh

미세먼지 저감률
목표대비 초과 달성

DPF 부착차량 무상 성능점검

미세먼지 저감 유관기관 공동 현장점검
(IPA, 국가기후환경회의, 환경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육상전원공급장치 활성화

공사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 MAERSK, HMM, 현대글로비스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정박한 선박에 대해 육상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AMP는 기존 선박 유류발전기 대비 온실가스는 40%, 오염물질인 황산화물 73%, 질소산화물 98%, 미세먼지 59%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도입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즉 저속운항해역 지역을 설정하고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노후예선 친환경 연료 전환

연안 화물선 중 항만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예선을 디젤 추진방식에서 LNG 연료 추진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펀드 형태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LNG예선 건조 성공 여부에 따라 전국 항만으로 도입되어 친환경 연료 사용을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하역장비 친환경화

컨테이너를 이동, 운송하는 야드트랙터는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사는 인천항에서 운영 중인 항만 야드트랙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해 항만장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항만출입 제한

국내 항만 최초로 노후차량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이 항만에 진입 시 경고음 알림, 저공해 사업 안내 등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만 대기질 모니터링 구축

인천항 항만 대기오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인천북항 목재부두, 남항 석탄부두, 신항 관리부두 등에 대기질측정소를 설치하고, 민·관·공 주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항만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현안 해결

인천항만공사는 미세먼지 배출저감률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 제한을 위해 대기질 유관기관(인천해수청, 수도권대기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차량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정책 안내와 홍보를 위해 선사, 대리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박 저속 참여율 30.9%에 도달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2020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저감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선박 운항, 대형차량 운행 등 항만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상부문과 육상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미세먼지 60% 저감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에는 미세먼지 33.6% 저감을 달성하여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목표	**중장기 미세먼지 배출저감률 달성으로 지속가능 친환경 항만 운영**	
배출량 모니터링	**인천항 대기질 측정소 운영**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항만별 대기질 측정소(3기) 설치 · 운영 도심/항만 대기질 비교 등 실측 데이터 관리	**항만, 배출오염원, 오염물질 등 제기준 배출량 산정** 목표/실적 관리 방향 및 환류 기반 마련

오염원 배출량 (2019년)

차량	선박	하역장비	항만 비산먼지	철도
배출량 **84.4t**	배출량 **77.8t**	배출량 **10.0t**	배출량 **6.1t**	배출량 **1.9t**
비중 **46.8%**	비중 **43.2%**	비중 **5.6%**	비중 **3.4%**	비중 **1.1%**

대응방향
정부 · 이해관계자 협업, 재정지원 등 주요 오염배출원별 집중관리 강화
차량, 선박, 하역장비 등 상위 3개 오염원이 전체 배출량 95.6% 비중 차지

| 주요 오염배출원별 집중관리 강화

해상부문	**선박전원공급** (고압용 1기 증설) 부두접안 엔진가동 중단 육상전원 선박 연결 · 공급 ▸ **고압용 5기, 저압용 68기 운영** 저감효과 SOx 73%↓, $PM_{2.5}$ 66%↓	**선박저속운항** (참여 인센티브) 인천항 저속운항해역 지정, 선박입항 감속 운항 권고 ▸ **VSR제도 준수율(96%) PA 1위** 저감효과 SOx 61%↓, $PM_{2.5}$ 61%↓	**LNG 선박건조** (국내 최초) 노후선박 친환경 대체건조, → 화석 LNG연료엔진 전환 ▸ **건조공정률 75.9%(21년 6월 완료)** 저감효과 SOx 99%↓, $PM_{2.5}$ 98%↓
육상부문	**장비 친환경화** (부착 100% 달성) 장비 배출저감장치 부착, 장비연소 오염물질 억제 ▸ **저공해 전환율(92%) 전국항만 1위** 저감효과 CO 81%↓, $PM_{2.5}$ 80%↓	**항만 출입제한** (항만 최초) 5등급 노후차량 항만출입 제한시스템 구축 · 운영 ▸ **노후 차량 식별 및 차주 계도** 저감효과 NOx 38%↓, $PM_{2.5}$ 66%↓	**비산먼지저감** (계절관리 강화) 에코호퍼 · 살수차 증편운행 비산먼지 방진막 추가설치 ▸ **건비상저감조치 특별 관리** 저감효과 PM_{10} 80%↓, $PM_{2.5}$ 80%↓

2020년도 배출량 저감 실적
기준년도 대비 미세먼지 배출저감률 33.6% 달성 : $PM_{2.5}$ 210.4(2017) → 139.7t(2020)
차량 25.2%↓(98.3 → 73.5t) **선박 43.5%↓**(81.2 → 45.9t) **하역장비 59.3%↓**(22.1 → 9t)

* PMx : 대기 중에 부유하며 존재하는 입자 중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PM_{10}), 지름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PM_{2.5}$)로 정의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환경보호 브랜드 'SEARCLE'

해양·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인천항만공사는 해양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자원순환 브랜드 '씨어클(SEARCLE)' 브랜드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브랜딩화하고 있습니다. 씨어클(SEARCLE) 브랜드는 SEA(바다)와 Recycle(재활용), Clean(깨끗한) 등의 단어를 합성하여 만들어졌으며, 로고 속의 파란 고래는 100년전 인천 앞바다를 드나들던 대왕고래(Blue Whale)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공사는 SEARCLE(씨어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저감 캠페인, 에코백, 웰컴 키트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해역환경 정화로 해양관광자원 보전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지역수협 및 어업인 단체와 함께 '인천해역 환경정화의 날'을 매월 지정·운영해 인천해역의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연안정화의 날', '바다의 날' 등 해양환경 기념일마다 노사공동 '섬지역 환경정화 캠페인'을 추진해 섬 지역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강화도 주요관광지를 찾아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을 기원하며 생태탐방로 등 섬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No 플라스틱 인천항

'No 플라스틱 인천항'을 위해 국제기구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저감 캠페인 아그위그(I green, We green)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주된 사용처인 사내카페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CAFEOASIA)와 협업하여 해양쓰레기의 주원인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퇴출을 위해 옥수수 전분 추출물로 제작된 친환경 생분해소재 PLA플라스틱 컵과 빨대로 대체해 연간 3만개 이상의 1회용 플라스틱 컵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협력기업 친환경 확산

인천항 협력기업과의 친환경 항만을 위한 약속 「SEARCLE Tie-Up(씨어클 타이업)」 파트너십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Zero-플라스틱 터미널 조성 사업으로 여객터미널 카페의 일회용품을 생분해 PLA 소재로 전면 교체한데 이어, 씨어클 타이업 1호점 '대박푸드'에 친환경 종이컵 6만개를 전달하였습니다. 공사는 씨어클 타이업이 앞으로 항만운영사, 선사, 배후단지 입주업체 등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 해양 환경보전 인식 제고

미래세대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고민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해양환경 공모전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교육 친환경 플라워백, 에듀키트 배포로 집콕 생활 아이들의 자연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한편, 친해양 환경 공모전 '고교 패션 콘테스트 with 이상봉'을 개최해 해양환경 업사이클 부문 환경보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항만미세먼지 에듀클립

생태환경교육 친환경 플라워백

SOCIAL VALUE 2.
태양광 에너지로 지역복지 실현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내 유휴 자원인 물류창고 지붕이나 배후단지 등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환경과 복지 두 가지의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친환경 복지사업으로 신개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장학금	탄소배출권 장학금	소아암 환우 치료	카카오페이 연계
나눔 햇빛발전	꿈나무 햇빛발전	나음 햇빛발전	국민참여 햇빛펀드

발전소 운영 수익으로 장학금 지원

'햇빛나눔발전소'는 2016년부터 인천항 인근 지역고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후 무상양도한 공익발전소입니다. 친환경 전력 생산·공급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고,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해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 인재 양성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매년 90명의 햇빛 장학생에게 총 2천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햇빛발전'은 도서지역 학교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기증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상계처리한 비용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한 수익을 섬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으로 매년 3백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태양광 - 시민펀드 - 미래세대 지원

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금융상품과 연계하는 인천항 햇빛·나음 시민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공사의 차별화된 사업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모아진 자금으로 인천 북항 배후단지와 화물차 주차장에 2.5MW 규모의 '나음 햇빛발전'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협약하여 발전 수익의 일부를 소아암 환우의 치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2,500만 원의 치료기금을 소아암 환우 가족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금융플랫폼과 연계한 전 국민 참여기반 햇빛펀드를 2019년 공모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운영 수익으로 국제 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학대 아동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데 매년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만배후단지 민간기업 창고에 조성한 햇빛발전소 ▶▶▶

공유가치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사회

Topic Backgrounds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추구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사항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득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저성장,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여 인권, 노동권, 안전,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Link to SDGs

8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11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Our Approach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과 지역사회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일조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 왔습니다. 공사는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인천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I-SEIF)을 조성하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Interview | 01

박순삼 _ 백령쑥영농조합 베델식품 대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위치한 저희 회사는 백령도에 자생하는 싸주아리 약쑥을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쑥진액, 쑥환, 쑥차 등 다양한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통해 판매되는 저희 회사 제품을 2019년에는 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생산성 혁신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포장 설비를 최신 설비로 무상 교체하여 디자인과 형태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신제품 출시는 물론 포장 속도가 빨라져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Interview | 02

유인경 _ 신나는조합 팀장(I-SEIF 기금운용사)

'신나는조합'은 지난해부터 I-SEIF 기금 운용기관으로 인천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3기 펠로우 15개 기업들이 사회 취약계층 19명을 포함하여 45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매출이 전년대비 14%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가운데는 생선 생산가공 판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친환경 면제품 생산판매, 어린이 미술교구 개발, 개발도상국 공정무역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취약계층에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문화예술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IPA 2030 Strategy

항만 연계형 포용경제 견인

- 포용적 민간 일자리 창출 및 공정경제 선도
- 일하는 방식 혁신 기반 공공일자리 창출
- 중소 및 사회적기업 지속성장 토대 구축
- 스타트업 육성 기반 혁신성장 실현

Key Performance

민간 일자리 창출	협력기업 근로자 만족도	지역밀착 사회공헌 만족도
1,298 명	93.9 점	91 점
한국판 뉴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망 구축으로 일자리 추진력 제고	협력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	지역주민 제안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행복한 일이 생기는 인천항

지속가능한 일자리 전략

인천항만공사는 '행복한 일이 생기는 NO.1 항만, 인천항' 조성을 일자리 창출 비전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공사 핵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비전	"행복한 일이 생기는 NO.1 항만, 인천항" 조성			
추진방향	공공 일자리	항만산업 일자리	지역 일자리	항만뉴딜형 일자리
추진과제	공공 일자리 창출	고유사업 연계형 민간일자리 창출	지역일자리 창출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비정규직 관리체계 강화	항만일자리 기반 고도화	지역 인재양성 및 창업 기반 마련	혁신기술 투자 및 수요 창출

2020년 일자리 창출

1,298 명

* 기타 공공 일자리 등 포함

연간 목표

100 % 달성

항만사업 연계 민간 일자리

공사는 대규모 항만 인프라 건설사업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 등 여객시설 개발로서 64명의 일자리를, 배후부지 신항·아암물류2단지 및 북항 배후단지 조성 등 배후부지 조성으로 214명의 일자리, 준설 및 환경개선으로 141명, 항만안전 및 환경으로 1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항만시설 위탁사업 일자리

공사는 물류 특화단지 조성 및 물동량 창출이라는 핵심사업을 통해 물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유치 노력(466명), 특화단지 조성(26명), 배후단지 신규기업 입주(17명) 등으로 일자리 증가 또는 고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항만위탁 시설사업을 통해서는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위탁사 신규 인력 채용(51명), IPA 볼파크 (15명), IT 유지보수(5명), 대형선박용 전원공급장치 관리(5명) 등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 한국판 뉴딜 일자리

| 지역사회 일자리

| 항만산업 일자리

● 2020년 일자리 창출목표 ● 2020년 일자리 창출실적

항만기능인력 양성과정

항만물류 맞춤형 지원

항만물류와 관련한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항만 일자리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특성화고 졸업생에 물류기업 취업 매칭 프로그램 통해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항만기능인력인 지게차운전기능사로 1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양성하여 인천항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력기업 체력단련실, 작업장 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경영컨설팅 등과 같은 간접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발굴·육성으로 신성장 일자리

공사는 항만업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육성하고 시너지를 내는 개방형 혁신으로 기업과 스타트업 모두가 함께 윈윈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금·공간·인력·개발 등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육성기업 네트워킹 구축 등 지속 관리의 단계별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계	발굴	성장지원	공유
육성사례	(발굴)해양 기름사고 유출 소형 방제로봇 - 2019년 해커톤	(자금)로봇 개발 재료, 외주 용역비 등 지원 (공간)창업공간 회의 및 외부미팅 활용 (개발)유출현장 견학 통한 제품개발 보완	(공유)대기업 5억원 투자 유치 등 활동기반 후배 멘토링

| 협력기업 근로자 만족도

협력기업 협업 혁신적 일자리 창출

협력기업과 R&D를 통한 협업으로 혁신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분야에서는 ▲고압 육상전원공급시설 핵심기술 국산화(일자리 5명), ▲자연냉매 활용 선박 냉방시스템 개발(2명), ▲스마트 항만대기질 관리플랫폼 개발(11명)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컨테이너 검색정보 공유 플랫폼 기술 개발(4명), ▲항만특화 스마트 시설물 관리시스템 개발(4명), ▲드론 이용한 물류창고 재고조사 자동화 서비스(3명) 등의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2020 인천항 협력기업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분류		추진노력	일자리 창출
공공 일자리	정현원 관리	수시채용 및 근로형태 다각화로 일자리 나눔	15명
항만 일자리	위탁사업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등 위탁범위 확대	51명
지역일자리	창업기업	아이템 발굴 → 성장 → 지속관리 단계별 창업지원	16명
	사회적 기업	공동기금 조성으로 금융·성장·코로나 긴급지원	45명
뉴딜 일자리	기술개발	협업으로 그린·스마트·디지털 분야 기술개발	34명
코로나19 지원	경영부담 완화 지원	여객·화물·연관산업의 임대료 및 사용료 감면 경영난 해소 지원을 위한 상생펀트 확대 운영	484명

동반성장

항만특화 동반성장

동반성장 전략 및 추진체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구현하여 항만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과 연대로 항만특화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생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공사는 해운·물류업계 및 지역사회와 함께 재정지원 및 방역지원, 경제 활성화를 통해 중단없는 항만 운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항만업계 경영난 대응과 근로자 감염 확산, 구매 및 판로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

위기수준	지원분야	추진노력	추진실적
존폐위기단계	국제여객	**사용료** : 국제카페리선 선박료 및 화물료 100% 감면	81.6억 원
		임대료 :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료 100% 감면	
	연안여객	**임대료** : 연안여객터미널 선사, 입주업체 임대료 50% 감면	
경영위기단계	배후단지 등 입주기업	**임대료** : 배후단지 및 배후부지 각 30% 임대료 감면	60.9억 원
경영위기 진입단계	항만하역업	**임대료** : 부두 물동량 15% 감소 시 6개월간 임대료 10% 감면	2.5억 원
		'컨'터미널 임대료 납부유예(분기납 3회분 → 9회분 월선납제)	
	항만용역업	**임대료** :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장치장 부지	**임대료** : 장치장 부지 이용 시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 2020 생산성 혁신 지원사업

기업명	개선과제	효과
에스틸	제조현장 조명 교체로 작업환경 개선	**조도** 50Lx → 300Lx
쉐코	목표성과기반 인사평가체계 구축	**체제 완성도** 40% → 100%
베델식품	포장기계 도입으로 제품 생산성 향상	**시간당 포장수** 60개 → 120개

생산성 혁신 지원

중소협력사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은 중소·창업기업의 제조·경영·기술·환경·안전분야의 역량강화를 돕고 필요한 경우 물품과 장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 사업으로 공사는 2014년부터 매년 생산성향상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에스틸, ㈜쉐코, 베델식품의 3개사를 선정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당 1천5백만 원 상당의 컨설팅 및 장비구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운·물류기업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해운·물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협력기업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상생펀드 2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예치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중소 협력기업 대출시 일정 금리를 자동 감면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오는 2023년까지 펀드 규모를 60억 원까지 확대하여, 대내외 환경에 따라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인천항 중소협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과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Trade Incubator Progra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된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제도로써 공사는 항만특화형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rade Incubator Program'은 단계별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으로, 판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의 3단계 8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2020년에는 특허 6종, 해외규격 1건, 거래선 발굴 4곳 등 총 14개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 항만업계 경영난 대응 자금 지원

- **임대료 및 사용료 감면**
  - 피해기업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 **경영안정화 금융지원**
  - 상생협력대출 확대 20억 → 40억
- **종사자 생계지원**
  - 일용직 항만종사자 생계유지 임금지원
- **인센티브 지급**
  - 신규 물동량 창출 대상 인센티지급

방역 지원 — 항만근로자 대상 감역확산 차단

- **개인방역**
  - 협력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
  - 체온계 · 보호장비 지원
- **집단방역**
  - 집단검사소 제공
  - 전자 출입명부(QR코드) 도입 홍보
- **여객방역**
  - 열화상카메라 설치
  - 주 4회 전문방역 실시
  - 터미널 내 격리공간 확보
- **선원 방역**
  - 선원교대 목적의 외국인 선원 수용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경제 활성화 — 구매 및 판로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 **구매 및 판로 지원**
  - 동반성장을 도입 등 판로지원 확대 2.1억원
  - 수산물촉진 및 화훼구매 캠페인 추진 9.9백만원
  - 전통시장 구매확대 등 고통분담 노력 3.5억원
- **제조 · 물류기업 성장지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중장년 항만전문 인력양성 및 인력 매칭

사회공헌

지역사회 상생협력

소통기반 상생협력 체계 정립

인천항만공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공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은 물론,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항만업 종사자, 지역기업 등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만족도 향상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만족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2020년에는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더 나은 & 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의 만족도는 91.0점(전년 대비 4.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더 나은 & 더 안전한 지역 만들기 만족도

| IPA 사회공헌 사업 인지도

	지역주민	항만업계	지자체	지역기업
소통채널	아이디어 전달海(269건) 국민제안바다(71건)	선사 · 크루즈 간담회(7회) 컨테이너 운영사(4회)	인천해양수산발전협의회 (8개 안건)	중소기업 소통채널 SNS 협력海
니즈확인	교통안전 등 지역 안전 인프라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 요구	공공자원 지역사회 개방요구	기업 성장을 위한 산업육성 지원
추진분야	안전강화	경제활성화	복지·편의 제공	지역성장
과제도출	지역 참여, 협력 기반 교통안전 지역사업	기업 회복탄력성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보유자원 공유기반 지역주민 편의확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지원
모니터링	**지역주민** 지역사업 주민 만족도 · 인지도 조사 | **이해관계자** 인천항 관계자 대상 소통지수 조사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대상별 맞춤 지원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구호물품 드론 배송

공사는 인천시의 '인천형 물류 로봇' 특화 사업에 참여하여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통해 도서지역에 코로나19 긴급물품 운송에 성공하였습니다. 인천신항부터 의약품을 실은 드론은 영흥도와 자월도까지 80여 km를 날아 물품 배송 실증에서 국내 최장 거리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수요에 맞춘 다양한 물류로봇 실증 사업화에 참여하여 도서지역 수송을 원활화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의약품을 실은 배송 드론

코로나19 취약업종 구매확대 노력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급감으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화훼농가 및 수산양식업계 매출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7천1백만 원의 물품을 생필품, 방역용품 등 10가지 상품으로 구성하여 나눔박스로 제작하고 취약계층에 기부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 힘이 되고 항만인근 지역의 독거 노인들에게는 든든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나눔박스

인천항 서포터즈와 안전캠페인

공사는 연안 도서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제3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방역횟수를 주 4회로 확대하고 옹진군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자진 신고소를 설치하여 여객선 이용 승객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옹진군은 전국 유일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

더 나은 & 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인천항만공사는 일방향 지원사업이 아닌 지역사회가 체감하고 있는 지역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모방식을 통해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높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더 나은 &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상 텃밭 (Free-Talk 밭)'

공사는 구도심(자유공원) 일대에 텃밭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분양하여 지역주민의 마을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옥상 텃밭(Free-Talk 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 지역 복지관 옥상에 텃밭을 조성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분양하여 농산물 콘테스트, 친환경 먹거리 주민교육 등 도시농업을 매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더 나은 지역 만들기 '옥상 텃밭(Free-Talk 밭)'

장애인·주민 어울림 '카페53'

공사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던 지역복지관 까페를 지역주민에게 확대하여 장애인과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동구 카페 53'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2층 휴게실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1층 로비로 이전해 신체장애인 바리스타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역주민은 자유롭게 복지관에 방문하여 휴식하고 공감하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지역 만들기 '동구 카페 53'

인도 휴식공간 '한 평 쉼터'

인천 동구 '한 평 쉼터'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노상 쉼터가 부족하다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에 지역주민이 많이 방문하는 복지관과 공공기관의 주요 길목에 조그만 쉼터 17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보로 긴 거리이동이 힘들었던 노인, 장애인 누구나 한 평 쉼터를 들러 쉬어가며 복지관과 공공기관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지역 만들기 '한 평 쉼터'

스쿨존 교통안전 '옐로카펫'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인천연수구 관내의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행이 잦은 스쿨존 10개소를 선정하여 옐로카펫을 설치하였습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입니다. 공사는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옐로카펫'

지역밀착·항만특화 사회공헌

공사는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과 해양·항만 특화형 사업으로 지역사회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해양물류라는 핵심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지역사회에서 발굴하여 업(業)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실천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봉사 및 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에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해 온 후원과 봉사활동을 대신해 2020년에는 비대면 봉사로 전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8개 기관에 후원금과 함께 도시락 배달,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 · 기부하는 한편, 미혼모 돕기 美母 KIT 40세트를 제작하여 항만 인근 지역에 전달하였습니다.

美母 KIT 내 배냇저고리 만들기

어린이 안전우산 제작

'함께海' 코로나 예방물품 기부

인천 해양수산분야 상생협력 협의체 '함께海'를 통해 코로나 예방물품을 취약계층에게 기부하였습니다. '함께海'는 공사를 비롯하여 인천지역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물류업계, 항운노조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로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함께海' 협의체와 코로나19 예방용품 지원

해양물류 인재 육성

인천 '아이리더' 인재육성 사업으로 인천지역 청소년 카누 유망주를 일대일로 후원하여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특화 사업으로서 해양 진로체험, 해양·물류 관련 특성화고 및 해양소년단을 지원하여 해양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업 관련 학과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해 도서지역 자매결연

공사는 해양친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농어촌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봉도·아차도 자매결연, 연평도·백령도 태양광 발전 장학사업에 이어, 2020년에는 대이작도에서 노사공동 사회공헌으로 방역물품 전달, 전기공사 등 재능기부를 통한 노사공동 사회공헌을 실천하였습니다.

대이작도 사회공헌 재능기부 봉사

공정경제

더 공정한 인천항

공정경제 체계 강화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정경제 모범거래 모델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규제개선 제도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경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공사는 항만공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공사는 CP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내부준법시스템을 운영하여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위한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에 기반하여 연계과제 31개를 발굴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설

'기업성장응답센터' 신설 등 규제 혁신

항만공사 특성에 맞는 공정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정·개선된 규제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사규 내 12개 규정(77건)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용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여 인천항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적용 확대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 공사의 범위를 2020년부터 확대 시행하여 대상 금액 기준을 기존 도급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 공공기관이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목표	모범거래모델 이행을 통한 더 공정한 인천항 구현			
추진방향	항만운영 관행 개선	협력업체 계약 개선	불공정행위 차단	자율준수 지속체계
추진과제	표준계약서 확대	계약보증금 면제·인하	공동도급 참여 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계약정보 사전제공	선금 지급 확대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프로그램(CP) 도입
	터미널 계약변경 허용	전자인지세 공평부담	하도급 지킴이 확대 시행	업무 투명성 강화
추진 체계	계획수립	사업시행	모니터링	환류
	내 · 외부 의견수렴 (內) 공정경제 추진단 (外) 시민참여단 등	모범거래모델 기반 이행과제 35개 담당부서별 실행	주 · 월간 점검회의 지연과제 중점관리	우수성과 발굴·포상 대내외 공유 및 소통

SOCIAL VALUE 3.
사회적 경제로 지역사회 활력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I-SEIF)'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SEIF는 인천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동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8.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48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사회적 금융투자, 경영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업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I-SEIF 3기 펠로우 15개사를 선발하여, 6개 기업에 스타트업 펀드 6천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9개 기업에 스케일업 펀드 2억5천3백만 원을 무이자 대출 지원하는 한편, 동시에 컨설팅, 공통교육, 온라인 마켓 입점 등 기업 성장지원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I-SEIF 금융지원 누적 기업
단위 : 개

I-SEIF 금융지원 금액
단위 : 백만 원

2020년 일자리 창출
45명

2020년 매출액
62억 원
전년대비 14%↑ 상승

I-SEIF 출범식

I-SEIF 사업주체

- 기금 출연 및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계획 수립
- 참여 공공기관의 비즈니스 연계 등 협력과제 추진

사업주관

- 활성화 공동기금 운용 총괄
- 지역의 우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 지역중간지원 조직 육성

성장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상담
- 전문 및 Peer 멘토를 통한 지원기업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공
- 참여 공공기관과의 비즈니스 연계 알선

사후관리

- 지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 사후관리를 통한 지원기업 성장지원
-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기업간 네트워킹

사람중심 소통과 혁신

Topic Backgrounds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인 기업이 이익 극대화와 업무 효율성 중심을 넘어 사람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중심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을 조직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기업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인간 존엄성을 기반에 둔 인권경영, 일과 삶의 균형, 수평적 기업문화, 자발적 혁신중심 경영 활동 등을 수반하는 사람중심 기업문화는 궁극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Our Approach

인천항만공사는 인권이 중시되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및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제도, 차별 없는 근로문화 조성 등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고 청렴·윤리경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ink to SDGs

4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5 양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소녀의 권익 신장

10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16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책임있는 제도 구축

IPA 2030 Strategy

열린 혁신경영 기반 확대

-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및 혁신문화 조성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극 추진
- 전문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사업 책임경영 내재화

-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관리
- 전략적 사업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람중심 혁신적 기업문화 구축

- 전략적 조직운영 기반 전문성 강화
- 직무 기반 보수체계 및 공정한 성과평가
- 소통협력 기반 융합형 조직문화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인권 기반의 윤리경영 강화

- 열린 준법·청렴·윤리 문화 확산
- 적극행정 활성화·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 사회형평적 인사 기반 사회통합 실현
- 차별 없는 인권중심 인천항 일터 조성

Interview

이지은 _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인천항만공사는 조직 구성원의 연령이 타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조직문화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것 같습니다. 이사회 근로자 참관제 도입, 청년 이사회 운영, 사내벤처 설립 지원 등 직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녀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를 보장하고 퇴근 문화를 바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소통방식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ey Performance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전직원 참여 조직문화 개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유효화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실적

30%

비대면 채용설명회 참가 등
맞춤형 홍보 강화에 따른 지원율 향상

팀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10.4%

관리자 직위 신설 및 핵심보직 발탁으로
여성관리자 비율 상승

근로자 일·생활 균형 만족도

86점

위드 코로나, 일·생활균형 제도로 극복
포스트코로나, 일하는 방식 개선 대비

인권경영

인천항만공사 인권경영 헌장

사람중심 인권경영

인권경영 전략

인천항만공사는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고객과 직원의 인권을 우선하는 행복 중심 글로벌 항만'을 인권 비전으로 수립하여 사람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경영목표와 시스템 및 경영평가에 인권경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단계별 과제를 추진하여 인권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체계 강화

공사는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규범, 조직, 교육 등 추진시스템을 강화하여 실행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한편, 위원회에 인권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부서별 인권지킴이를 도입하여 지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규범

인권경영 비전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를 둘러싼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는 인권경영 규범을 통하여 사람중심의 인권존중 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윤리 및 인권관련 내부 15개 규정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권침해를 신고하고 구제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와 함께 IPA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을 수립 및 배포하였습니다.

목표	고객과 직원의 인권을 우선하는 행복 중심 글로벌 항만 구현		
추진방향	인권경영 실행기반 강화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인천항 인권경영 확산
추진과제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강화	이해관계자 인권 강화	협력사 인권경영 확산 지원
	인권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 안전망 구축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시스템	조직체계	규범체계	교육체계	평가체계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선언문	대상별 맞춤 교육 (온·오프라인)	인권경영향평가
	인권침해상담센터	인권경영 이행지침		IPA인권경영지수

시민대상 인권우편함

인권경영 가이드북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

공사는 항만업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국내 4개 항만공사와 공동으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해 선포하였습니다. 헌장은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해운항만업계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해운항만산업 분야에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헌장에서 정의한 인권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전문기관이 공사의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기본으로 객관적인 인권 평가 지표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에 있어서 8개 지표가, 주요 사업 부문에 있어 4개 지표의 보완사항이 제시되어 분야별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대상 공사의 인권문화성숙도 조사결과 93.8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인권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범인천항 인권경영추진단' 운영으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권경영을 추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인권 보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권경영헌장 및 이행지침 제정	인권경영 운영지침	인권관련 규정 정비
인권경영헌장 선포로 인권의지 공표(2017 제정)	인권 침해 구제 조치 및 사전 예방 노력(2018 제정)	윤리 · 부패 · 계약 등 규정 개정(2020 정비)

인권존중 문화 정착

임직원의 인권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안전, 정보보안 등 인권분야별 전문교육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2020년에는 인권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경영 주간 마이크로 러닝 실시(245명), 인권영화 감상(21명)을 통한 인권의식 내재화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맞춤형 교육으로 인권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내 인권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협력사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경영 이행을 확산하기 위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을 홍보하고 배후단지 입찰 시 인센티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 도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IPS)와 2개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구축하였고, 31개 협력기업이 공사와 계약 시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을 체결하여 인권존중을 약속하였습니다.

인재경영

차별없는 인사문화

동등한 인사제도

인천항만공사는 임직원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합리적인 보수를 제공하고자 성별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없이 100% 동일한 보수와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사와 교육에서 적절하고 공정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수에 차이가 있을 뿐 호봉과 직급이 같은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성관리자 비율

양성평등 제도 개선

공사는 선도적 균형인사를 추진하여 조직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여성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 선임하여 여성임원이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할당제 도입 및 성별 최대 구성비율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관리자 임용 5개년 계획에 따른 도전적 여성임원임명 목표비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제 개편을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비약적으로 확대하여 2019년 4.3%에서 2020년에는 10.4%로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비차별제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별도직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를 위한 비차별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인사, 교육 등의 동일직급에는 동일급여를 제공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차별없는 직급대우 및 연봉제 근로조건,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졸 입사자의 근속연수 및 근무성적평가가 적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졸자와 동일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대졸자와 동일한 보수급여를 적용하는 등 동등한 인사제도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비차별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차별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차별요소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 고졸직원 인사관리만족도

사회형평적 채용

공사는 채용과정 전반에서 청년, 고졸자,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청년 조기 채용 실시와 체험형 청년인턴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정규직 기준 30%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8.3%의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With 코로나, 일·생활의 균형

| 일·생활 균형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이 일터가 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구성원의 업무효율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육대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화로 극복하는 한편, 선제적 분산근무, 재택근무 절차 간소화, 코로나 블루 예방, 코로나 취약자 유연근무 의무화 등의 제도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연속성과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였습니다.

유연근무자 사용 인원

전년대비 74.8% 증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급속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의 경우, 임원·간부회의를 통폐합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한편, 회의 참석 대상을 임원과 부서장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영상 회의실을 구축하여 원활한 화상회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의 일상화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의 퇴직이 늘어나는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일·생활 균형의 일상화로 육아와 보육을 병행하면서 업무를 하거나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남성 직원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매뉴얼을 배포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일과 생활 균형 문화 조성 캠페인과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개인의 고민과 극복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연근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독려한 결과, 유연근무 사용인원이 2020년 215명(2019년 12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 교육훈련 만족도

인재육성 전략

인천항만공사는 중장기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 로드맵을 수립, 전략목표와 직원 니즈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적 관점으로 수립한 연간계획을 통해 성장역량을 확보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임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교육만족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계

직원 의견을 경청하고 경영참여를 유도하는 양방향 소통의 필요성과 노동조합 신뢰 제고 및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의 필요성, 소통채널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소통목적별 채널 운영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목적	소통 채널	추진내용	2020년
CEO 소통강화	청년이사회	젊은 직원 경영 참여, 조직문화 개선	4회
	직원 간담회	CEO와 직원 현안 공유	58회
	제안제도	서면 제안 제출 및 채택	196건
노동조합 소통 강화	노사 공동 워크숍	노사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토론	2회
	노사협의회	비대면 2회, 대면 2회 시행	4회
노사경영 현안 해결	주요현안점검회의	비대면 2020년 핵심 업무 및 성과 점검	14회
	근로참관제	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관	14회
	인권경영위원회	직원의견 반영을 위한 노조 위원 확대	4회
	안전근로협의체	IPA·인천항 안전 노사 동수 협의체	4회
	노사 공동 TF	성과평가 및 직무급 도입 협의	10회

HRD비전	물류·해양관광 분야 최고 수준 항만 전문인재 양성		
인재상	전문인	미래인	혁신·가치인
환경변화	역량중심 HRD 강화	코로나19 극복	미래사업 대응
	인사와 교육의 연계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인재육성 필요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학습환경 마련 요구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HRD전략 및 추진과제	역량중심 HRD 강화	학습방법의 전환	미래인재 확보
	HRD 전략체계 재구축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핵심인재 특화 양성 교육
	인사 교육평가 순환 체계 확립	비대면 교육방식 전환	뉴딜 선도를 위한 미래인재 양성
운영방식	교육훈련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방식 운영 자기주도형 선택학습, 멘토링 활동 등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교육훈련 운영 강화 디지털 교육 콘텐츠 자체 제작	

| 조직관리지수

단위 : 점

제2기 청년이사회 임명식

혁신적 조직문화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

인천항만공사는 근로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참관제 운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근로자 대표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재택근무 활성화, 팀장 독립업무 부여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점진적, 단계적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선도적으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노사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소통과 혁신 '청년이사회' 운영

인천항만공사는 '청년이사회(Junior Board)' 제도를 도입해 창의성 넘치는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기 청년이사회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수중 시설물 점검', '온라인 기반 항만부지 임대관리' 및 '여객터미널 상업시설 매출연동 사용료 제도 확대'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경영·운영·건설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2~30대의 젊은 직원 6명으로 구성된 2기 청년이사회는 2020년 출범하여 HIC(Hot Issue Conference), 임원간담회, 경영개선 아이디어 발굴회의 등에 참여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천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근로자 경영제언 활성화

참관자	경영 제언		의견반영 내용
근로자대표	임원의 선도적인 재택근무 실시 요청	▶	임원 재택근무 정례화 (주단위 순환, 2019년 0명 → 2020년 3명)
	직무급 도입을 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공사 특성 고려 직무급 설계를 위한 용역 실시
청년이사	실무형 팀장 단위업무제 도입	▶	팀장 업무분장에 독립 단위업무 지정 의무화
	육아휴직자 인사 불이익 방지	▶	육아휴직자 인사평가 중간 등급 적용

IPA 1호 사내벤처 업무협약체결

해운 빅데이터 활용 사내벤처 지원

공사는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0년 제1기 사내벤처팀을 선발하고 사업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는 국내 항만공사 최초로 해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내벤처 사업화에 돌입하였습니다. 사내벤처로 선발된 팀은 '해운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으며, 공사는 사내벤처팀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리경영

청렴·윤리문화

청렴/윤리경영 추진전략

인천항만공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윤리경영 실천'이라는 윤리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윤리경영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조직문화 정착과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창립 이래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ISO 37001 인증서

인권윤리위원회 및 전담조직

공사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2018년에 획득하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윤리경영 전략과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인권·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인권, 윤리경영 추진 및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2회의 인권·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특히 인권위원회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에 기반하여 기관운영과 주요사업(항만물류) 분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천항 이해관계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서별 인권지킴이, 청렴팔로워와 청렴새로미를 도입 및 운영하여 부서의 자발적 인권추진과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윤리경영 실천		
중장기 로드맵	2020 Back to the Basic	2022 Create Own Culture	2025 Lead the Network
	내외부 청렴도 회복 / 부패방지 제도 강화	민간/공공 청렴 문화 선도 / 부패방지 우수사례 개발·공유	선진 윤리경영체계 확산
추진전략 및 과제	고객 신뢰 회복	청렴·윤리문화 조성	투명경영 관리체계 운영
	고객 소통 활성화	내부 청렴 조직문화 개선	고위험요소 관리 강화
	청렴 취약분야 개선	부패방지 제도 개선	기록물 관리 강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2018	91.28점(우수)
2019	82.18점(보통)
2020	91.11점(최우수)

IPA 윤리경영 브랜드

IPA 청렴윤리경영
리스크 대처방안 가이드라인

청렴·윤리 조직문화 조성

다양한 콘텐츠와 제도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 임직원 청렴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실시하여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의 날과 반부패 주간을 지정해 전문가 초청 특강, 부당업무 지시 근절 서약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교육 실시, 청렴웹툰, 윤리경영 브랜드, 청렴 동영상을 제작하여 청렴·윤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윤리문화 조성

전사적 윤리경영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지침 및 규정 규정활동으로 2020년에는 비위행위자 고발 의무화와 징계감경 금지대상 확대, 비위행위자 승진제한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양방향 소통교육으로서 직급별 온라인 청렴교육을 신설하였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징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고위직(1-2급)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고객 대상 청렴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는 기업과 이해관계에 놓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공감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비위행위를 온·오프라인으로 점검하는 등 대외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감사부 참여로 고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회사 및 협력회사 대상 갑질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매월 임대차 및 용역 등 계약업체를 대상으로도 갑질 및 비위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 운영을 주관하며, 협력사 '청렴항만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렴윤리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인권윤리 조직도

내부견제기능 강화

부패리스크 제거 및 개선

인천항만공사는 내부 견제 시스템 정착을 위해 중장기 감사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 내실화 및 사전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예방 중심 내부 견제시스템의 확립 및 운영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을 목표로 공정한 감사, 투명한 감사, 신뢰받는 감사, 소통하는 감사의 4대 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내부견제 기능을 확립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 외부 협력, 감사 자격의 분야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별 맞춤교육을 연간 40시간 실시하고, 시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항만공사 감사협의체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감사인 자격을 재무/기술/ 물류 자격 보유자로 배치하였습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소속을 전원 감사인으로 확보하고 근무기간 보장, 개인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영, 예산편성 감사부서 사전협의 등으로 조직구성과 인사관리, 예산편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목표: 자율예방 중심 내부견제시스템 운영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

감사방침	신뢰받는 감사	투명한 감사	예방 중심 감사	소통하는 감사
전략	전문성 · 독립성 강화	부패 'Zero'	사전위험 예방	경영개선 지원
추진과제	감사 역량 강화	내부견제 활동 강화	예방적 자율 준수	적극행정 활성화
주요 실행과제	감사 전문성 강화 내외부 전문가 협업	신고시스템 개선 리스크 대응 자체감사 실시	CP제도 구축 · 운영 준법감시제도 상시 운영	적극행정면책제도 개선 적극행정 홍보강화

3중방어선: 1단계 현업부서 자율점검 → 2단계 전사단위 내부통제 → 3단계 감사부서 감사활동

신고채널: 레드휘슬(익명제보시스템) · 공익신고센터 · 부패 및 채용비리신고 · 갑질신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감사활동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연간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 체크리스트 기반 종합 · 특정감사, 복무점검 실기	비상임으로서 경영제언, 자체 감사활동 지원	시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PA 감사협의체 운영

| 감사만족도

단위 : 점

취약분야 예방을 위한 노력

공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부패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사업의 심의 및 집행에 따른 회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투자 심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투자심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현황을 공개하여 투명한 사업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리스크 제거 및 개선

공사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채용 전 과정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감사관이 면접 전 과정을 참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계약회계, 채용인사를 3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개선하고 있습니다.

| 2020년 분야별 내부견제 활동

점검분야	내부통제 활동	조치실적
계약분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관리 등	하도급계약자료 현행화 및 관리방안 마련
항만운영	인천내항 전대차계약 관리비 부과기준 개선 등	인천내항 전대료 기준 재수립 시정 조치
보안분야	항만시설 비공개 홍보자료 관리 소홀 등	비공개 정보 홍보자료 전량 폐기
복무관리	코로나19 비상시국 공직기강 해이 등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실시 불시 점검

* **레드휘슬** : 보안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반부패 시스템으로 국내 컴플라이언스 전문회사

감사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내부 견제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감사 관련 핵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약분야 감사 실시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인 레드휘슬*의 접근성 강화 및 신고제도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항만공사 감사협의체 활용 등으로 내부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로 주요 사업 추진 내실화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 경영제언 관리체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향후에도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선진감사를 이룩하고 지속가능한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입니다.

| 3중 방어선 모델 기반 내부통제체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통제주체	**현업부서 자율통제** 준법감시인, 청렴리더, 인권지킴이	**경영진 · 이사회 중간통제** 항만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예산 · 용역 심의위원회 등	**감사부서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위원회, 적극행정면책위원회
역할	법률·업무 규정 및 시스템을 활용한 자율준수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사단위 내부통제	상시 모니터링 및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최종 내부견제
운영성과	**자체 제도개선 건수** **49건**	**자체 예산절감** **102억 원**	**부패사고 발생** **Zero**

SOCIAL VALUE 4.
솔선수범하는 윤리문화

신뢰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인천항만공사는 일 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품격 있는 인천항만공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급자가 제안하고 상급자가 솔선수범하는 소통 방식을 채택 및 운영하여 조직 내 활력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급자는 제안·상급자는 솔선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별 온라인 익명 토론회, 입사 동기별 청렴 제안 간담회, 청렴해우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크게 고위직 솔선수범 강화와 조직문화 및 예산사용의 개선이라는 두 과제로 모아졌으며 각각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 제고와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서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하급직원이 바라는 리더상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뒤 전체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존경받는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10개 수칙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존경받는 리더 10계명

기관장을 비롯한 팀장급 이상 총 33명은 '존경받는 리더 10계명'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 릴레이 실천다짐 챌린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정된 10개 수칙은 반기 단위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거쳐 이행도가 높은 항목은 새로운 항목으로 교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공사만의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 사업으로 자기매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공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실천다짐 릴레이
첫 번째 주자
최준욱 대표이사

하위직 요구 ▶	청렴팔로워 / 청년새로미 등 하위직 의견수렴 전직원 투표를 통한 청렴 10계명* 수칙 선정
고위직 다짐 ▶	기관장을 선두로 관리직 전원 청렴실천 서약(33명) 매주 월요일 그룹웨어 접속 시 10계명 자가점검

존경받는 리더 10계명

사적 업무지시 금지	감정 컨트롤	직원 의견 경청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	공정한 평가
올바른 회식문화	프라이버시 존중	직원들의 쉴 권리	일·가정 양립	행복한 퇴근문화

PART 4 APPENDIX

성과 데이터
경제분야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자산	유동자산	36,858	108,103	185,754	77,980
	비유동자산	2,867,473	2,998,799	3,134,165	3,198,123
	자산총계	2,904,331	3,106,902	3,319,919	3,276,102
자본 및 부채	자본총계	2,150,742	2,159,640	2,165,617	2,251,906
	유동부채	72,478	45,675	337,734	271,326
	비유동부채	681,111	901,587	816,568	752,871
	부채총계	753,589	947,262	1,154,302	1,024,197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147,647	153,110	156,684	147,499
매출원가	79,216	87,452	96,476	105,523
판관비	33,429	37,588	37,970	47,428
영업이익	35,002	28,070	22,238	(5,453)
기타수익	411	6,770	5,554	2,397
기타비용	1,260	8,249	6,949	4,800
기타이익	8,763	17,433	16,008	169,223
금융수익	486	1,376	987	341
금융원가	20,509	19,274	20,649	21,532
지분법대상 기업관련 이익 등	-	-	-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22,892	26,127	17,189	140,175
법인세비용	5,143	9,023	3,904	51,071
당기순이익	17,749	17,104	13,285	89,104
기타 포괄손익	(1,955)	(2,904)	(417)	(223)

정부 보조금 지급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보조금	-	-	62	6.89

경제적 가치 분배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경제적 가치 창출 1)		1,398	1,511	1,527	1,407
이해관계자	임직원 2)	173	189	217	257
	주주 및 투자자 3)	205	193	206	215
	정부 4)	146	182	166	700
	재투자 5)	120	112	74	616
	지역사회 6)	8.5	14.8	13.9	24.5
	합계	**652.5**	**690.8**	**676.9**	**1,812.5**

1) 매출과 기타 부분 수익의 합
2) 임직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3) 채권자에 대한 이자비용
4) 재무제표 기준 조세공과금 및 법인세 비용
5) 향후 재투자 재원 및 사내유보 이익
6) 지역사회에 기부한 기부금

성과 데이터
환경분야

환경설비 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신재생 설비확대	-	26	21	27
신재생 설비 유지보수	0.3	0.3	0.93	1.20
에너지신산업	-	0	28	-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만tCO_2eq

구분	2017	2018	2019	2020
직접배출	61	42	41	26
간접배출	146	113	107	127
총량	**207**	**155**	**148**	**153**

※ **온실가스 산정 기준**
갑문운영건물(2개소),내항전력관리센터, IPA업무용차량(16대)

※ **터미널, 정석빌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사유**
여객터미널(제1국제, 제2국제, 신국제, 크루즈, 연안)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민간업체가 개별 계측하여 사용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석빌딩은 본사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NOx	6.701	6.093	5.910	5.084
SOx	1.209	1.072	1.162	0.530
초미세먼지($PM_{2.5}$)	0.210	0.190	0.180	0.140

※ 정부(해수부) 항만미세먼지 관리기준에 따라 미세먼지(PM_{10})에서 초미세먼지($PM_{2.5}$)로 관리기준 변경

용수 사용량

단위 : 천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용수 사용량(갑문)	7.508	11.607	7.964	6.826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

단위 : 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폐기물발생량	일반폐기물	1,880.27	1,932.83	1,476.73	1,327.74
	지정폐기물	1.00	5.13	1.98	4.67
	건설폐기물	3,284.14	10,533.00	9,875.45	32,209.67
	총 폐기물 발생량	**5,165.41**	**12,470.96**	**20,861.92**	**33,542.08**
재활용량		3,480.98	10,767.20	9,507.76	32,484.34
재활용률		67.39%	86.34%	83.74%	96.85%

※ **환경정보공개시스템(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고자료 기준**
여객터미널(제1국제, 제2국제, 신국제, 크루즈, 연안)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전체를 임대한 것이며, 민간업체가 개별 계측하여 사용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환경설비 투자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 구매액	61	92	143	38
녹색제품	54	88	136	36
녹색제품 구매비율	88.5%	95.7%	95.5%	96.1%

성과 데이터
사회분야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		237	247	267	275
성별	남성(%)	184(77.6)	185(74.9)	199(74.5)	199(72.3)
	여성(%)	53(22.4)	62(25.1)	68(25.5)	76.25(27.7)
이직/퇴사자	남성(%)	4(1.7)	3(1.2)	4(1.5)	1
	여성(%)	0	1(0.4)	0	1
고용형태	정규직	222	230	244	248
	무기계약직(여자)	9	12	17	18(8)
	(직접고용)비정규직(여자)	6	5	6	9(1)
	간접고용(아웃소싱)	11	33	29	33
신규채용	남성(%)	23(80.7)	6(50)	18(78.3)	5(50)
	여성(%)	5.5(19.3)	6(50)	5(21.7)	5(50)
근무지역	국내 근무	235	246	265	273
	해외 근무	2	1	2	2
직급	임원	2	4	3	4
	관리자급(1~3급)	63	62	61	59
	직원(4급 이하)	172	181	203	212
연령	20대(%)	42.5(17.9)	50.5(20.4)	58.5(21.9)	55.25(20.1)
	30대(%)	99.5(42.0)	98.5(39.9)	108.5(40.6)	114.5(41.6)
	40대(%)	55(23.2)	57(23.1)	49(18.4)	57(20.7)
	50대이상(%)	40(16.9)	41(16.6)	51(19.1)	48.5(17.6)
다양성	전체근로자 중 여성수(%)	53(22.4)	62(25.1)	68(25.5)	76.25(27.7)
	전체관리자 중 여성수(%)	1(1.6)	1(1.6)	3(4.9)	4(6.3)
	장애인 비율	3.0%	2.8%	3.4%	3.7%
사회형평 신규채용	장애인	3	0	2	1
	고졸	1.5	0	2	1
	국가유공자	2	1	2	2
	지역인재	5	1	5	3

유연근무제 운영실적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시간 선택제	5	7	44	40
시차 출퇴근형	32	59	114	150
근무시간선택형	5	10	44	49
집약근무형	5	4	15	18
재택근무	0	0	0	188

육아휴직 이용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육아휴직 사용인원	남	0	0	0	2
	여	4.5	9.5	9	9
복귀인원	남	0	0	0	1
	여	1	4.5	2	5
복직 후 12개월 유지인원	남	0	0	0	0
	여	5	1	4.5	2
복귀율(%)	남	0	0	0	100
	여	100	100	100	100
근속률(%)	남	0	0	0	100
	여	100	100	100	100

임직원 교육훈련

구분	단위	2017	2018	2019	2020
인당교육시간	시간	133.1	113.36	128.83	129.30
인당교육비	천 원	3,192	3,508	3,511	3,600
교육예산	억 원	7.63	8.77	9.44	9.33

윤리경영

단위 : 등급

구분	2017	2018	2019	2020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2	2	3	3
부패방지시책평가(국민권익위원회)	면제	2	3	1

계약 투명성

단위 :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계약	464	548	647	551
수의계약	186(40.1)	213(38.9)	283(43.7)	314(57.0)
경쟁입찰	155(33.4)	134(24.5)	110(17.0)	88(16.0)
나라장터 쇼핑몰	123(26.5)	201(36.7)	254(39.3)	149(27.0)

| 산업안전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사망만인율	0.00	4.03	0.00	0.00
산업재해율	0.64	0.52	0.31	0.50
안전사고발생건수	16건	13건	8건	13건

※ 항만하역업 기준

| 노동조합 가입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가입대상인원		-	-	-	228
	정규직(일반 정규직)	-	-	-	198
	비정규직	-	-	-	2
	정규직(무기계약직)	-	-	-	18

※ **노동조합 가입범위**
3급이하 직원이며, 3급팀장, 인사, 노무, 감사, 급여, 자금, 전산업무 담당자 및 임원비서, 임원전용운전원, 기타 노동조합과 합의한 직원은 제외

※ 2020년 신규 보고지표로 이전 연도 데이터 생략

| 중소 협력사 해외판로개척 지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자금지원	33	53	81	97
지원기업(참여기업)	2개사	5개사	19개사	26개사

※ 신규작성(AEO공인획득 지원사업, Trade Incubator Program 합산)

|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지원	1.3	2	1.75	1.00

| 사회적 책임 제품 구매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중소기업제품	975	1,633	1,854	770
기술개발 제품	45	143	129	53
여성기업 제품	29	47	112	93
장애인 제품	7.53	21.70	53.70	36.94
합계	**1,056.53**	**1,844.7**	**2,148.7**	**952.9**

※ 2018년, 2019년 크루즈 터미널, 신국제여객터미널 준공으로 사회적 책임 제품 대량 구매 발생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사회적기업 제품	7.52	12.7	17.4	17.3
협동조합 제품	0.36	0.4	0.4	0.4

| 사회공헌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기부금	8.49	14.78	14.72	24.45

GRI Index

| Universal Standards(GRI 100)

구분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조직 프로필	102-1	조직 명칭	14	-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4~19	-
	102-3	본사의 위치	14~19	-
	102-4	사업 지역	14~19	-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4~15	-
	102-6	시장 영역	20	-
	102-7	조직의 규모	14~15	-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87	-
	102-9	조직의 공급망	62~63	-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	중대한변화없음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48~49	-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92~93	-
	102-13	협회 멤버쉽	98	-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2~	-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22~23	-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78~79	-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78~79	-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26~27	-
	102-20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직원 책임	26~27	-
	102-2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28~29	-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26~27	-
	102-30	위험 관리 절차의 효과성	26~27	-
	102-31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검토	26~27	-
	102-33	중요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28~29	-
	102-34	중대이슈의 특성 및 수	32~33	-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28~29	-
	102-41	단체협약	74~75, 87	-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32~33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32~33	-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28~29, 32~33	-
보고서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entities(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14	-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32~33	-
	102-47	Material Topic 리스트	32~33	-
	102-48	정보의 재기술	About this Report	-
	102-49	보고의 변화	About this Report	-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About this Report	-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99	-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About this Report	-
	102-55	GRI 인덱스	91~99	-
	102-56	외부 검증	94~95	-
경영접근법	203-1	Material Topic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35~36, 46~47, 58~59, 70~71	-
	203-2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
	204-1	경영 방식 평가		-

Topic-specific Standards

| Economic Standards(GRI 200)

구분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84	-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52~53	-
간접경제효과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64~67, 69	-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6~8, 22~23	-
조달관행	204-1	주요한 사업 지역에서의 현지 구매 비율	88	-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78~79	-

| Environmental Standards(GRI 300)

구분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용수	303-1	공급원별 취수량	85	-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85	-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85	-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52~53	-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54~55, 85	-

| Social Standards(GRI 400)

구분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고용	401-1	신규채용과 이직	86	-
	401-3	육아휴직	87	-
산업안전보건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율, 업무 관련 사망자 수	88	-
	403-3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48~50	-
	403-4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49~50	-
훈련 및 교육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76	-
인권평가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72~73	-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64~67, 69	-
고객 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48~49	-
고객정보보호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입증된 불만 건수	50	-

UNGC

인천항만공사는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분야에 있어 국제적 규범 준수를 통한 기관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UN 산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에 2020년에 가입하였습니다. 공사는 환경·노동·인권·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 운영과 경영 전략 내재화를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하여 항만분야에 있어 선도적으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항만 유관기관 및 민간업계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This is our **Communication on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supporting broader UN goals.

We welcome feedback on its contents.

원칙	페이지
01 조직의 기능과 사업 단위에 대해 서술합니다.	14~15
02 가치사슬 내에서 글로벌콤팩트 원칙 이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36, 46, 58, 70
03 인권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	72~73
04 인권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72~73
05 인권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72~73
06 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76
07 노동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76
08 노동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76
09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52~53
10 환경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52~53
11 환경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52~53
12 반부패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78~79
13 반부패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78~79
14 반부패의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78~79
15 핵심사업이 UN의 목표와 이슈에 공헌하는 바를 서술합니다.	36, 46, 58, 70
16 전략적 사회 투자와 사회공헌활동(자선활동)을 서술합니다.	64~67, 69
17 정책적 지지와 공공정책의 참여를 서술합니다.	92, 93
18 파트너십과 협업활동을 서술합니다.	92, 93
19 CEO 성명서와 리더십을 서술합니다.	2~3
20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26~27, 30~31
21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서술합니다.	28~29
22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시를 포함합니다.	84~89
23 외부 COP 평가를 포함합니다.	92

UN SDGs

UN SDGs(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공동의 목표로 추진하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UN SGDs와 공사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연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NO POVERTY 빈곤퇴치

전통시장·소상공인·소외계층 대상 자금, 물품

임산물 소비촉진 나눔행사 장소 지원

3 GOOD HEALTH AND WELL-BEING 건강과 웰빙

아동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소아암 아동 기부 및 후원

도서지역
1사1촌 맺기, 문화소외 지원을 위한 책나눔 지원

4 QUALITY EDUCATION 양질의 교육

지역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공모 우수장학금 수여

스포츠 유망주 청소년 1:1 지원, 해양분야 장학 지원

신재생 에너지지원 신설 및 연간 장학금 지원

5 GENDER EQUALITY 양성 평등

여성관리자 비율 비약적 확대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가족 친화기업 인증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 보장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

하천정화활동 등 환경보존활동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에너지 접근 보장

산간·도서 등 소외지역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통한 보편적 에너지복지증진

AMP 활용,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항만물류 고유사업을 통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지역 벤처창업 기업 자립 및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인천지역 유관 및 협업기관 협력 일자리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산업화 증진

항만 및 배후단지 등 인프라 적기 공급 건설
- 배후단지 140만㎡ 공급,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인천항 신규 완전 자동화 '컨'터미널 개발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골든하버 등 해양관광 자원 활성화

국제 및 연안터미널 시설 확충

수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인천항 친환경 브랜드 "SEARCLE" 제작·활용

'항만 미세먼지 저감' 시청각영상 공유

생태환경교육 '친환경 플라워백' 배포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 대응

인천항 신재생에너지원 확충 및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국내최초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 건조

인천항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14 LIFE BELOW WATER 해양생태계 보호

항만폐기 방충재 활용, 리사이클링 개발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탄소복합소재 기반
도로포장 건설 보강재 개발

15 LIFE ON LAND 육상생태계 보호

항만 건설 시 멸종위기종(검은머리갈매기, 맹꽁이)
보호 조치 및 대체 서식지 조성

환경정화 캠페인 정례화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지역사회 제안형 혁신모델
'더 나은 & 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업계 및
지역 영세 업체 지원 인센티브 신설

사용료·임대료 감면을 통한 항만업계 지원

제3자 검증의견서

인천항만공사 이해관계자 귀중

한국품질재단은 인천항만공사의 요청에 의해 2020 인천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하기 명시한 검증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본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은 인천항만공사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본 검증은 보고서에 공개된 조직의 활동과 성과 검증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검증 표준인 Accountability사의 AA1000AS v3에 따라 계획 및 수행되었습니다. 검증팀은 4대 Accountability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성)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Type 1"과 제한적으로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중간수준(moderate level)" 검증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GRI Standards 핵심적 방식(Core Option)에 해당하는 하기 보고 요구사항 충족 여부도 함께 평가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201-1, 201-2
- 간접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203-2
- 조달관행(Procurement Practices): 204-1
- 반부패(Anti-Corruption): 205-2, 205-3
- 에너지(Energy): 302-1, 302-2
- 용수(Water): 303-1
- 대기배출(Emissions): 305-1, 305-2, 305-5, 305-7
- 환경법규준수(Environmental Compliance): 307-1
- 고용(Employment): 401-1, 401-3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2, 403-3, 403-4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412-2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413-1
- 고객안전보건(Customer Health and Safety): 416-1
- 고객정보보호(Customer Privacy): 418-1

검증 방법

검증팀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관련된 절차, 시스템 및 통제의 방식과 가용한 성과 데이터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비재무 정보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직전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해 조사된 자료 등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재무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 공개된 재무제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본 검증은 현장방문을 제외한 서면검증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보고서 내 중대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이슈 선정, 데이터 수집·관리 및 보고서 작성 절차의 유효성과 서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상기 단계에서 발견한 일부 오류, 부적절한 정보, 불명확한 표현들은 인천항만공사가 제공하는 최종 보고서에서 적절히 보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본 검증은 적격한 심사팀을 구성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인천항만공사의 사업 전반에 걸쳐 검증의 독립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제한 사항

보고서에 제시된 성과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및 대응성은 해당 데이터의 특성과 수치를 확정, 계산,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 및 근거에 대한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원본 데이터의 신뢰성 확인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발견사항 및 검증 결론

상기 검증 활동을 수행한 결과, 검증팀은 본 보고서의 내용이 GRI Standards 의 'Cor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하기 원칙에 따라 Type 1 보증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원칙 준수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포괄성**(Inclusiveness)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조직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 선정 및 관련 대응전략 도출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지 여부

– 인천항만공사는 고객, 임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 소통 프로젝트, 노사협의회, 안전근로협의체와 같은 적절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대성**(Materiality)
각 지속가능성 주제가 조직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제 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해당 내용들이 경영 활동 전반에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 인천항만공사는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경영 영향도 관점에서 관련 이슈의 중대성평가를 수행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대성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누락 없이 보고서 내에 공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응성**(Responsiveness)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 및 기대사항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 인천항만공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요구와 주요 관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활동 및 성과가 부적절하게 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영향성**(Impact)
이해관계자의 우려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대 주제의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 인천항만공사는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중요 이슈에 따른 영향을 식별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권고

향후 지속가능경영 체계화와 보고서의 효과적인 성과 공개를 위하여 다음의 발전적인 접근을 권고 드립니다.

▶ 향후 중대성 평가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이 더욱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더 균형 있게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해양오염 및 항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여, 향후 비전 수립 시 환경적 가치와 관련한 실행 과제의 비중이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가 핵심 물류기지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관으로서, 국제 네트워크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도 더 비중 있게 대응 및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 17. 글로벌 협력 확대)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AA1000 Licensed Report 000-80/V3-E8WQ4

kfq Korean Foundation for Quality

2021년 3월 26일
서울, 대한민국
한국품질재단 대표 송지영 Ji Young Song

ISO 26000 진단의견서

서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진단인')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이행 진단을 요청받았습니다.

독립성

인천항만공사는 지속가능경영 진단 이외에 진단인과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단표준 및 수준

진단인은 인천항만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ISO 26000 진단모델을 적용하여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검토하였으며, 진단 수준은 '일반 수준(moderate)'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진단 범위 및 방법

진단 범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인천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조직, 목표관리, 추진활동, 포괄범위 등을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진단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관련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중장기 전략보고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검토
인천항만공사의 부서별 업무계획서 문서 검토
인천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미디어 보도내용 분석

진단 의견

진단인은 공사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내외 활동을 확인하고 ISO 26000을 충족하기 위한 다음의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

> 사회적 책임을 조직 내의 관행으로 실행하는 지침으로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이해, 조직 전반에 걸친 통합, 의사소통, 조직의 신용도 제고, 진척 검토 및 성과 개선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조직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사회적 책임 운영이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인식'과 '의사소통', '개선' 부문이 우수한 편으로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실행력이 꾸준히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천항의 미래상으로 안전, 환경의 가치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향후에는 전사 비전 및 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시하여 제기된 주제와 관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나가길 권고합니다.

7대 핵심주제별 진단 의견

조직 거버넌스

> 조직 스스로가 결정과 활동의 영향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사회적 책임을 통합시키는 요소로 사회적 책임 행동에 대한 조직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입니다.

전사 2030 경영목표로서 미세먼지 저감율, 재난안전 관리지수 등을 설정하여 명확한 목표 및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영방침으로서 안전환경, 지역사회 기여, 직원 행복을 중점적으로 추구하여 조직 내에 사회적 책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인권

> 인권은 조직 내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 보호 준수하며 실현하는 활동입니다.

공사는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규범, 조직, 교육 등 추진시스템을 정비하여 실행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운영 및 밸류체인 내 인권 영향과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기 위한 실사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인권경영을 확산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노동관행

> 조직 내외에 직·간접적 통제권이 있는 피고용인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을 포함합니다.

공사는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항만산업 연계, 지역사회, 민간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만업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육성하여 공사의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협력기업과 R&D를 통한 협업으로 혁신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돋보입니다. 향후에는 창출된 일자리의 고용의 질을 모니터링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근로현장의 안전 리스크 적극 발굴 및 개선하는 등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길 권고합니다.

환경

>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입니다.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목표와 해양 플라스틱 대응 등 친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운영 배출원별 저감 대책 시행,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연구개발, 협력기업 플라스틱 사용 저감, 미래세대 친환경 교육 실시 등 지속가능 소비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및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환경데이터의 보고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정운영관행

> 조직과 파트너, 공급자 등 조직과 타 조직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두고 부패방지, 공정경쟁, 사회적 책임을 촉진합니다.

코로나19 중 인천항 이용 선사 대상 특별 인센티브 지원 등 감면정책 시행으로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노력이 우수합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달과 구매결정 시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가치사슬 내 협력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을 확산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정책을 구축하길 권고합니다.

소비자 이슈

> 조직은 제품과 서비스 및 사용, 수선, 폐기 정보를 통해 지속가능소비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자연재해영향성 평가를 통해 유형별 영향인자를 선정 및 평가하여 시설물 위험요인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보안 3대 과제로서 보안장비·보안제도·보안인력 개선을 도출하여 신종 테러에 대비하는 등 항만보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조직은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고용 창출이나 사회적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모방식을 통해 개선하는 '더 나은 & 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지역체감형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I-SEIF)' 운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로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나눔 햇빛 발전, 꿈나무 햇빛 발전 등은 환경과 복지 두 가지의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됩니다.

진단 결론

인천항만공사의 ISO26000 이행수준 진단 결과, 프로세스 측면은 360점 만점에 355점, 성과 측면 은 640점 만점에 633점으로 평가되어 총점 988점으로 SR IV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단계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수준이 높고 조직의 운영시스템과 정책과 관행이 정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치사슬 내의 조직의 영향권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kpc 한국생산성본부

2021년 3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 규 성

주요 협회 가입

한국선주협회	대한민국비상계획관협회	인천비상계획관협회
인천항보안협의회	안전관리협의회학회	(사)한국경제통상학회
(사)한국통상정보학회	(사)사회적기업학회	한국무역학회
(사)한국취업진로학회	공공기관사회적책임연구원	

주요 수상 실적 및 인증 현황

주요 수상 실적

01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0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 혁신대회 우수상
03	인천광역시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 인천시장상
04	환경부 2020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환경부장관상
05	환경부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환경부장관상
06	환경부 제9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인증 현황

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02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03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04	한국선급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05	한국표준협회 숨쉬기 좋은 공간 실내공기질 인증

보고서 문의처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인** 최준욱
- **발행처** 인천항만공사
- **전화** 032-890-8000
- **홈페이지** www.icpa.or.kr
- **주소** (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타워(31~35F)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